

INVENTION & PATENT

2010 October _ Vol. 411

10



창립 37주년

모바일 인터넷과
컨버전스 시대의 보안의 역할
IT 트렌드와 보안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첫 무대라 긴장한 신인가수,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만
주인공 대신 나와서인지
다들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다.

그 때,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아빠~ 최고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관객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작은 믿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든 이야기-
포스코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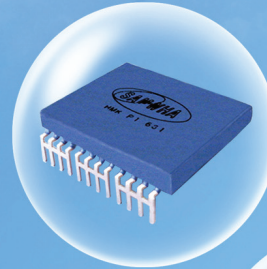




SAMWHA CAPACITOR Co., Ltd.

Green Technology with SAMWHA

PEA (MLCC for High Power
Electronic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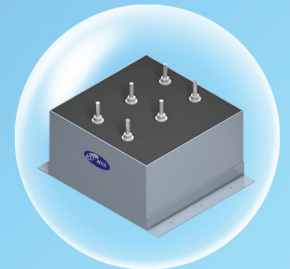
HEV (Hybrid & Electric Vehicle)
DC link Capac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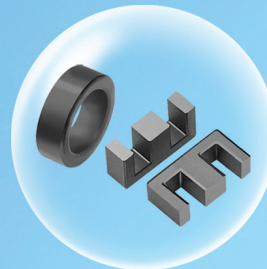
Green Cap (ED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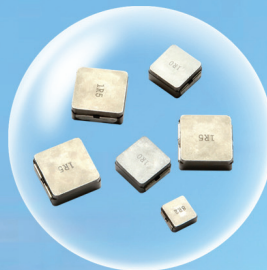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Capacitors



Ferrite and
Magnetic Powder Cores



MPC Inductors



High Voltage MLCCs



www.samwha.com

124 buk-ri, Namsa-myeon, Che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Tel. 82-31-332-5441, Fax. 82-31-332-7661

PRODUCT SELECTION

DB Cr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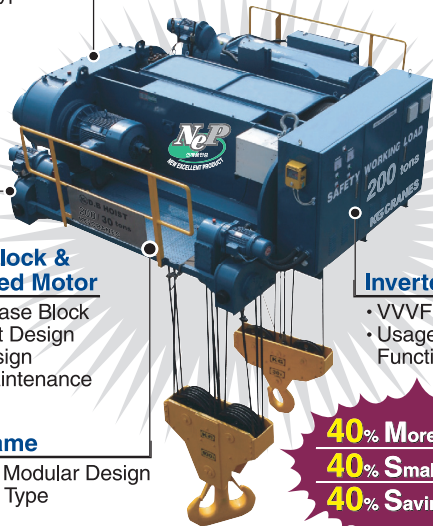
(대통령 표창, NEP 인증 제품)

Gear Box & DC MG Brake

- Modular Design
- Variable Speed
- Variety Type of Brakes

Reference

- 현대중공업 : 20,000 ton/year
- POSCO : 30,000 ton/year
- 삼성조선 : 50,000 ton/year
- American Shipyard : 5,000 ton/year
- Middle East Steel Mill : 10,000 ton/year



Wheel Block & TS Geared Motor

- Single Case Block
- Compact Design
- BBS Design
- Easy Maintenance

Inverter Panel

- VVVF Control
- Usage Memory Function

Main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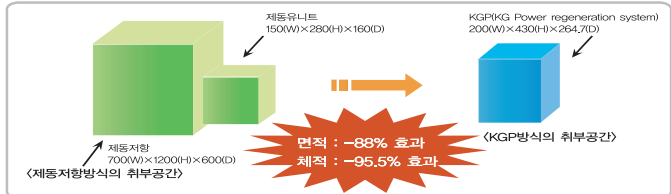
- 10Kinds Modular Design
- Package Type

40% More Light
40% Smaller
40% Saving Cost

KGP (KG Power regeneration system)



! KGP 도입에 의한 공간 절약



! KGP 적용시 전기요금 절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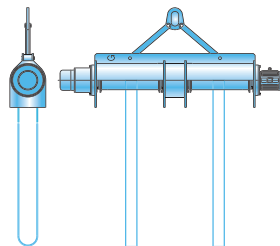
모터 용량 (KW)	고효율 호이스트 KGP적용 후 절감율(%)	절전 용량 (KW)	산업체 적용 전기요금 절감액(원)		
			3,600시간	4,800시간	5,400시간
11	11	1,21	233,917	311,890	350,876
15	11	1,65	318,978	425,304	478,467
22	17	3,74	723,017	964,022	1,084,525
37	22	8,14	1,573,625	2,098,166	2,360,437
55	21	11,55	2,232,846	2,977,128	3,349,269
90	22	19,8	3,827,736	5,103,648	5,741,604
132	22	29,04	5,614,013	7,485,350	8,421,019

• 한국고벨(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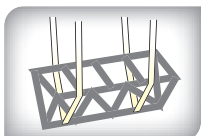
Turning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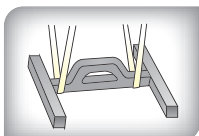
Turn it E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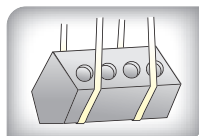
Application



Truss



Steel Structure



Engin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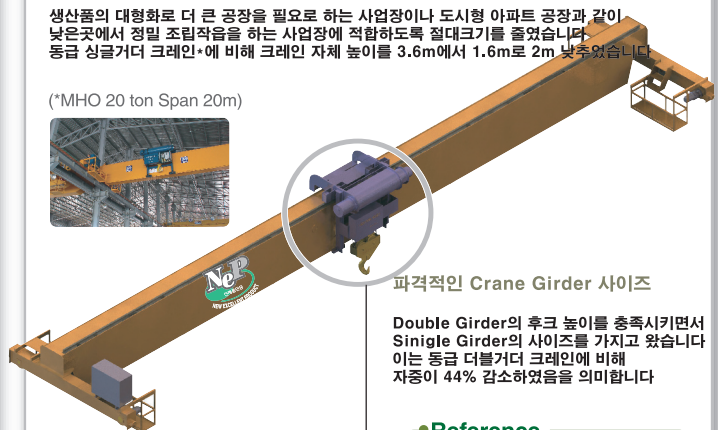
Low Space Crane

(NEP 인증제품)

건축비를 낮추는 크레인

생산품의 대형화로 더 큰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도시형 아파트 공장과 같이 낮은곳에서 정밀 조립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절대크기를 줄였습니다. 등급 상급거더 크레인·에 비해 크레인 자체 높이를 3.6m에서 1.6m로 2m 낮추었습니다.

(*MHO 20 ton Span 20m)



파격적인 Crane Girder 사이즈

Double Girder의 후크 높이를 충족시키면서 Single Girder의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등급 더불거더 크레인에 비해 자중이 44% 감소하였음을 의미합니다.

Reference

- 두산중공업 : 8,000 ton/year
- POSCO : 6,000 ton/year

VVVF Control (인버터 컨트롤)
진동, 소음, 슬립이 없어 미숙련공도 쉽게 사용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handl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혁신적인 Hook 높이
Mono Girder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높이를 만족시키며, Double Girder Crane의 높이 혹은 그 이상을 만족시킵니다.



쿠빙스 원액기 특별한 당신을 위해,
쿠빙스가 만드는
색(色)다른 주스세상!



저속 압축 착즙 방식

갈지 않고 원액을 짜내는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으며 순수한 생즙을 드실 수 있습니다.



거품제거 기능

원액 컵에 거품제거 뚜껑을 장착하여 편리하게 거품을 제거해 맑은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 적용

본체에 손잡이를 적용하여 쉽게 이동 가능하며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고속 주서기



쿠빙스 원액기

갈지 않고 그대로 착즙해 영양이 보이는 주스

기존 주서기는 고속회전 칼날로 갈아 만들기 때문에 주스가 변질되어 총이 생기는 반면 쿠빙스 원액기는 갈지않고 착즙해, 보기에 영양기득한 주스가 완성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KIM, CHOI & LIM

업무영역

- 기업법무일반(회사의 설립, 조직변경, 해산/청산, 주주총회/이사회/각종 위원회 등 회사운영, 주식의 취득/처분, 임원의 선임/해임 및 경영권 방어 등), M&A 및 기업구조조정, 도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노동 및 고용관계, 부동산 및 건설, 환경, 정보통신, 조세, 국제거래, 합작투자, 기술도입, 무역 및 외국환, 인터넷 관련 법무
- 상업차관도입 및 해외유가증권발행,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 금융, 파생금융, 간접투자자산운용, 기업공개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 등 금융 및 증권업무 일반
- 채권관리,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매매, 임대차, 신탁, 저당권 등), 일반 민사/형사/행정소송 업무, 중재업무, 공증업무, 등기업무
- 국내 및 해외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등록출원, 저작권, 영업비밀, 도메인 네임, 반도체칩, 기술/특허/상표/소프트웨어/저작권 라이선스, 위조품단속 및 세관통관저지, 부정경쟁,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제반업무

구성원

- 변호사: 김세권, 유지담, 고영주, 정동욱, 신인용, 신건수, 심창섭, 최원현, 길기봉, 이형하, 김희태, 이재환, 김영철, 김용직, 임희택, 함귀용, 최병철, 박기주, 고건호, 노동표, 박종민, 김대원, 이병세, 최종길, 이상덕, 서혜숙, 박우호, 김종재, 이 순, 정종국, 김보성, 박상화, 김태완, 김규혁, 정승식, 안윤우, 김재홍, 이석현, 이영선, 홍성진, 노재열, 서우성, 정경환, 신혜성, 곽욱섭, 안창현, 이제승, 전재우, 박은범, 김성범, 신석민, 진형구, 황규경, 노영재, 박경홍, 방중훈, 이명재, 진혜원, 박정민, 전진홍, 박종률, 임동완, 이정화, 이상훈
- 외국변호사: 신영준, 김승일, 강세원, 김경훈, 엄정현, 이정화(이상 미국), 주연홍(중국)
- 변리사: 김순영, 김민정, 최윤식, 최우성, 이현길, 유영조, 이정은, 서무원, 김산서, 최태성, 김태은, 박현정, 지예은, 최상국, 이태영, 박철현, 박상진, 지아람
- 회계사: 윤계근
- 상임고문: 강대형, 채규운, 심동섭

110-7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빌딩)
전화 : 02-725-4774, 02-721-4000 / 팩스 : 02-725-4994 (법률), 02-722-0747 (특허)
홈페이지 : www.kcllaw.com / 이메일 : kcl@kcllaw.com

2011학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모집 안내

2010년부터 특허청은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과 공동으로 창의적 잠재력을 지닌 소수 정예의 핵심인재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 빌 게이츠(MS),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구글)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영재들에게 체계적인 성장 환경을 조기에 제공하여, 변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회에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선발 안내】

구분	일정	비고
지원자격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교당 추천인원 (중학교 3명 이내, 고등학교 1명 이내)
선발인원	150명	KAIST 75명, POSTECH 75명
서류접수	2010. 10. 11(월) ~ 10. 24(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11.15)
설 명 회	서울	2010. 10. 12(화) 16:00~17:30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중회의실
	대전	2010. 10. 18(월) 16:00~17:30 KAIST ICC(문지캠퍼스) 강의동 104호
	대구	2010. 10. 19(화) 16:00~17:30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 5호관 강당
홈페이지	www.kipa.org, www.ip-gifted.org (문의 : 02-3459-2753)	

20년 후 발명으로 달라진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20년 후에는 많은 것들이 현실로 변해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를 세상의 단면을 맘껏 상상해보고 글짓기 또는 만화로 표현하는 기회를 한국발명진흥회와 국립과천과학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34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을 통해 맘껏 누리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보자.



〈제34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

▶ 추진기관

- 주 최 : 한국발명진흥회, 국립과천과학관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 협 찬 : POSCO

▶ 신청요건

- 신청기간 : 10. 1(금) ~ 10. 27(수)
(마감일 18시 접수완료 건에 한함)
- 참가자격 : 신청일 기준 초·중학교 재학생
- 과 제 수 : 제한 없음
- 접 수 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접수방법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우편접수 불가)



[특허청지원 IP 전담인력양성과정]

Personal Example of US Patent Prosecution Strategy - Story of real cases examined by former examiner Jason Y. Pahng -

강의내용 및 운영방식

- 前 미국연방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한 미국변리사의 국내 기업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접 경험한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한 Real 미국특허전략 제시
- 실제 현업에서 부딪혀온 질문 등 Q&A 위주 토론식 강의

수강 대상

- 기업 등의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 (선착순 50명 이내)

강의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0. 21(목) 10:00~17:30 (1일 과정)
- 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www.parktel.co.kr)

강의 세부프로그램 : 한국어 강의(영어 일부 병행)

일 시	프로그램 내용
09:30 - 09:50	수강생 등록
09:50 - 10:00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강사소개
10:00 - 12:00	US Patent Law US Examiner US Patent Prosecution - First Office action/Final Office action
12:00 - 13:00	중식

일 시	프로그램 내용
13:00 - 14:30	US Patent Prosecution - Continued - Advisory Action - Appeal - RCE Case Studies
14:30 - 17:00	Reexamination - Ex Partes Reexamination - Inter Partes Reexamination ITC - How to prepare for ITC
17:00 - 17:30	설문조사, 수료식 등

강사 소개 : Jason Y. Pahng

미국 Ford 자동차 근무
미국 Landon Stark Cantwell & Paxton 근무
미국 연방특허청 심사관 (2004-2007)
리앤뭉 특허법인 (2007-2010)
Ladas & Parry, LLP (2010 현재)

수강료 및 수강혜택

- 수강료(본인부담금) : 30,000원
- 수강료(10만원)의 70% 특허청 지원(본인부담금 30,000원)과정
- 중식제공 및 우수 수강생 선정 상품지급
- 출석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10. 10. 4 (월) ~ 10. 19 (화), (선착순)
- 접수처 : Email (kyeonm@kipa.org) 또는 Fax (02-3459-2859)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02-3459-2818, 2806

[특허청지원 IP 고급직무과정]

라이선스 계약과 국제협상전략 모의시뮬레이션 과정

강의내용 및 운영방식

- 기업 등의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능력향상을 위한 모의시뮬레이션과정
- 사례분석 및 토론을 통해 모의시뮬레이션 팀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강의

수강 대상

- 기업 등의 지식재산 관련 담당자(선착순 30명 이내)

강의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1. 3(수) ~ 11. 5(금) (2박 3일 과정)
- 장소 : 곤지암 리조트(www.konjamresort.co.kr)

강의 세부프로그램

일 시		프로그램 내용	강 사 (안)
1일차 (11/3)	13:00~13:50	라이선스 시나리오	김수철 노경섭
	14:00~17:50	라이선스 계약의 이해	
	19:00~21:00	팀 프로젝트(1) - 협상전략 수립, 제안할 라이선스계약서 검토 및 모의시뮬레이션 준비 등	
2일차 (11/4)	9:00~12:00	라이선스 계약의 이해	최정열 황차동 최치호
	13:00~14:50	라이선스 협상 사례	
	15:00~16:20	라이선스 협상 스킬	
	16:30~17:50	팀 프로젝트(2) - 조별 라이선스 협상	
	19:00~21:00	팀 프로젝트(3) - 조별 라이선스 협상	
3일차 (11/5)	9:00~10:00	협상 정리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김경만
	10:00~11:30	팀별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강평	
	11:30~12:00	우수팀 시상식, 설문조사, 수료식	

수강료 및 수강혜택

- 수강료(본인부담금) : 172,000원
- 수강료(약 58만원)의 70% 특허청 지원(본인부담금 172,000원)과정
- 숙식제공 및 우수 수강생(팀)선정 상품지급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10. 10. 11(월) ~ 10. 29(금) (선착순)
- 접수처 : Email (kyeonm@kipa.org) 또는 Fax (02-3459-2859)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 ☎ 02-3459-2818, 2806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

(하반기 단기집중 프로그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별 지식재산 교육의 자립화를 위해 하반기 T3 프로그램(Teaching the Teachers)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개최목적

-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인 전국 대학(원) 교수들의 특허역량 강화
-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교육 기반 구축



○ 대상 및 수강자 특전

- 대상: 전국 대학(원) 교수 중 과정별 30명 내외 선발
- 수강자 특전: 교육비 및 숙식(2인 1실) 제공
 - ※ 1인실 희망자의 경우, 추가비용 본인 부담 조건으로 제공

○ 커리큘럼

일 정	과 정 명	프 로 그 램
10월 18일~20일	특허명세서작성 입문	특허명세서 소개 및 청구범위 작성법 ※ 개인 프로젝트: 특허청구범위 작성
10월 20일~22일	특허기술 가치평가	특허기술 가치평가 소개 및 방법 ※ 팀 프로젝트(5인 1팀): 특허기술 가치 평가 수행

○ 교육강사

과 정 명	성 명	소 속
특허명세서작성 입문 과정	박형근 변리사	특허법인 세하
특허기술 가치평가 과정	양동우 교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특별프로그램: 건강한 삶을 위한 트레이닝(이희성 컨디션 트레이너)
(10월 20일 수요일)

2010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상표·디자인권전(TDEX)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SIIF) 동시 개최 및 출품신청 안내

지식재산권분야를 총 망라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전시회인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과 세계 우수한 발명품이 전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발명인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목적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
- 국내·외 발명인들의 교류 확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 촉진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10. 12. 2(목) ~ 12. 5(일), COEX 1층 Hall A
- 개막식 : 2010. 12. 2(목) 11:00, COEX 1층 Hall A 입구
- 시상식
 -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 2010. 12. 2(목) 11: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 2010. 12. 4(토) 18:30,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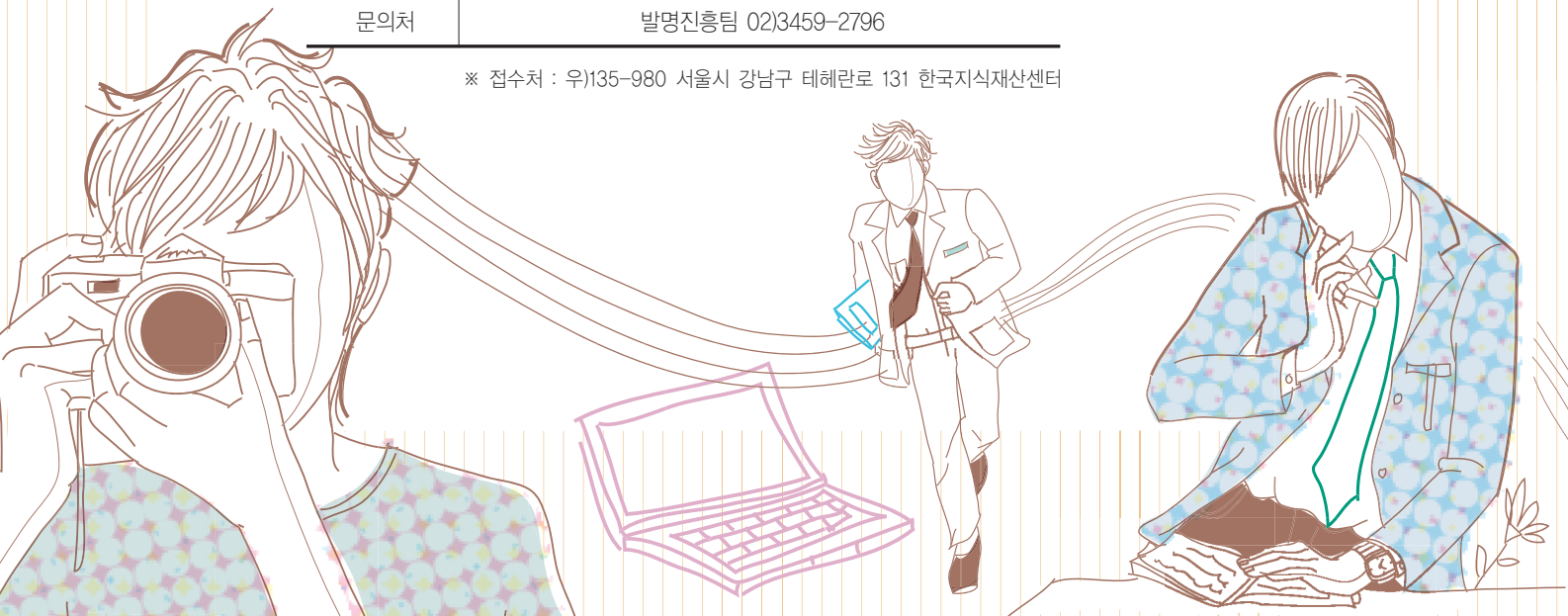
주최/주관

주최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출품신청

구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신청기간	2010. 8. 12(목) ~ 2010. 10. 20(금)
신청자격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발명·고안·디자인품
신청안내	www.siif.org
신청방법	우편제출
시상내역	대상, 준대상, 금·은·동상 및 특별상 등 200여 점
문의처	발명진흥팀 02)3459-2796

※ 접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제8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2010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여성의 발명 성공사례와 번뜩이는 생활 발명 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여성발명(기업)인을 발굴, 홍보하기 위한 「제8회 여성발명경진대회」와 「2010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이 함께 개최됩니다.

특히, 지난 1995년부터 수많은 여성발명기업을 배출해 온

「제16회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가 금년부터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으로 이름을 바꿔 시상합니다.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와 발명으로 사업의 성공한 여성들의 모범을 제시할 「2010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에 오셔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창조적인 발명아이디어를 만나보세요.

일시

2010년 11월 3일(수) 14:00

장소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
(서울 지하철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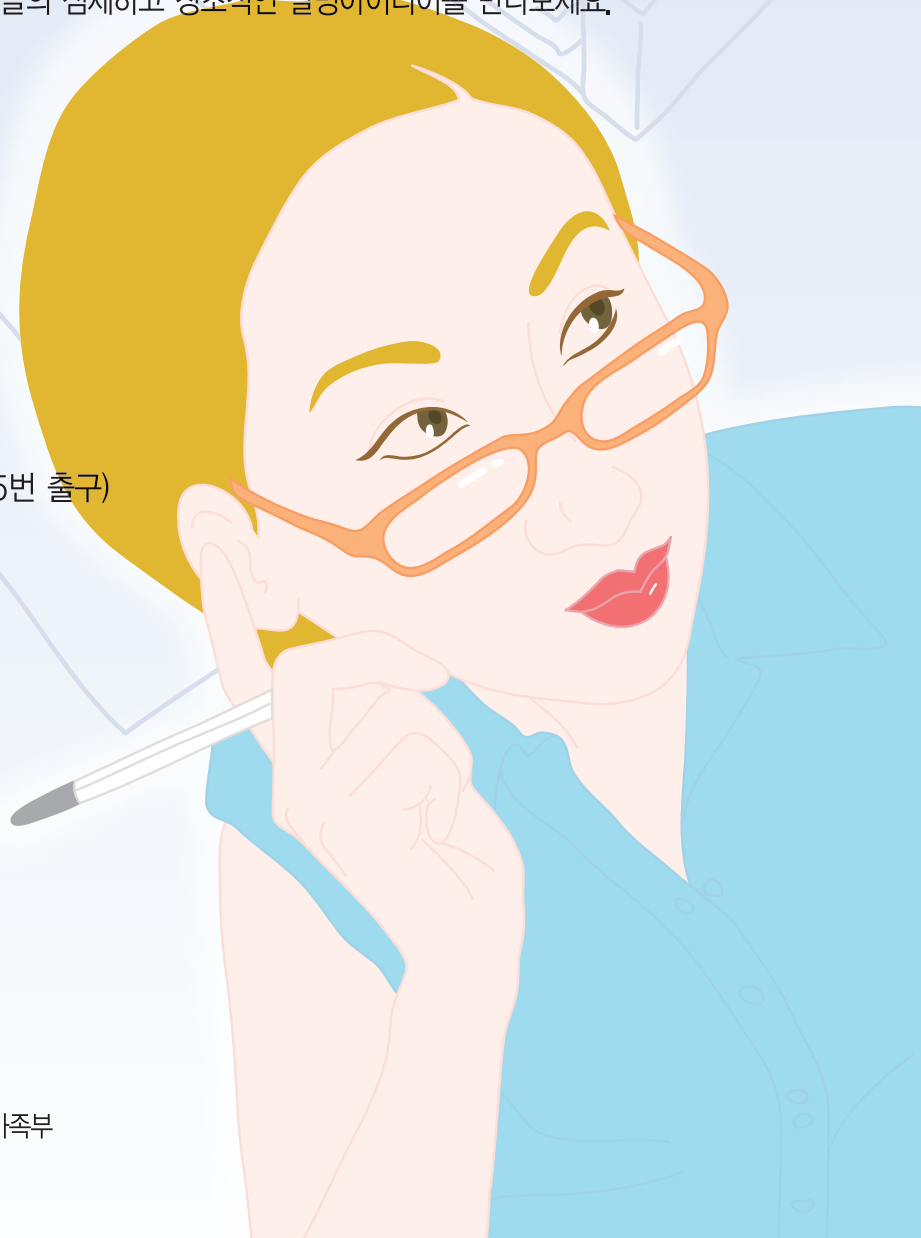
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전 화 02-538-2710
이메일 kwia01@inventor.or.kr

주최: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주관:  **한국여성발명협회**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디자인 정보

조사서비스

디자인정보 조사서비스

1. 디자인 조사서비스

■ 디자인 선행자료 조사서비스

- 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DB (한국·일본·미국·WIPO·OHIM (유럽)·GE·과거해외공보·실용신안·카탈로그)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등록 가능성의 예측 및 경쟁사 디자인 동향 파악 등에 활용

■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

- 빠른 출원을 원할 경우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후 디자인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서비스를 의뢰하고 전문기관이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디자인 무효·침해 조사서비스

디자인 분쟁에 관한 자료분석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무효 소송 및 침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

3. 디자인정보 분석서비스

의뢰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 디자인분야 연구개발테마와 관련된 출원 디자인의 배경과 관련 기술 등을 찾아 제공

4. 디자인 맵 서비스

국내외 출원된 디자인 이미지 검색, 트렌드 분석, 포지셔닝 맵, 이미지 맵, 유사디자인분석, 분쟁디자인분석 등 사용자가 자유롭게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http://www.designmap.or.kr/>)

안내

발명특허 기네스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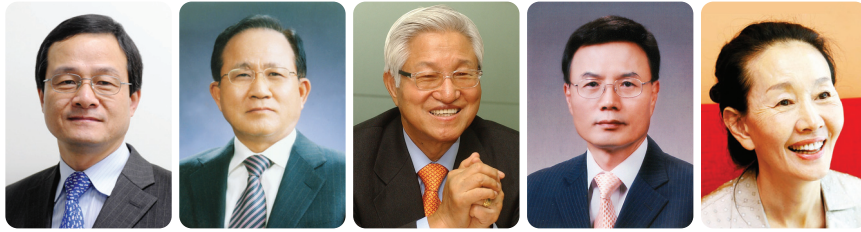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새로운 연속기획특집으로 '발명특허 기네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역사 뒷장으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어가는 발명특허 관련 자료 제1호를 찾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발명특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마련한 이 연속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제1호 또는 최대 등 '기네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개된 자료보다 앞선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잡아 소개하겠습니다. 기네스로 소개되는 순간 소장하신 자료는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기록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소개 대상은 편의상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법(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 제197호 한국의장령, 제198호 한국상표령 등) 시행 이후 자료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처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
02)3459-2797

Contents



한국발명진흥회
창립 37주년 기념 축하

IP Report

22	IT 트렌드와 보안	모바일 인터넷과 컨버전스 시대의 보안의 역할
29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재권 일반, 저작권, 법일반, 일반
30	IP5 협력동향	특허 선진5개 특허청(IP5) 협력 최근 동향
36	특허확대경	상표권 소진이론 및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의 비교법
42	시론	지식재산시대의 도래 (발명의 역사와 발명가의 과제)

IP Column

46	셀프리더십	성공을 향한 우선순위
49	책과의 만남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50	성공전략	누구나 하는 성공 (?) 아무나 못하는 성공 (I)
52	포커스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육아용품 편>
57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8	Zoom In	삼푸의 웰빙 (well-being), 한방삼푸
63	발명특허 기네스	최초의 발명 작문 현상모집 수상작품집
64	특허경영전략	변화를 관리하는 기업
69	발명 365	주판
70	시선집중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74	문화산책	공연안내 (친정엄마와 2박 3일)

IP Information



84 KIPA NEWS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출범식 열려

오는 11월 6일(토) 전국에서 제1회 시험 실시

76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경상남도 (남해 죽방멸치, 삼천포 쥐치포)
78	건강하게 삽시다	흡연이 구강질환을 유발할 때 우리가 얻는 손실
80	KIPO NEWS	특허청 소식
83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9월 신규 회원가입사 소개
84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91	재미있는 퍼즐	함께 풀어봅시다

Invention & Patent October 2010 Vol. 411



특허청장 이수원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0월 18일은 한국발명진흥회 창립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사단법인 한국특허협회로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한국발명진흥회의 37번째 생일을 특허청 직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처음 발족할 7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이 기업경영의 핵심가치가 되고 있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 발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 것은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눈부신 성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출범 당시 2만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009년 36만여 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였고, PCT 국제출원 역시 8천여 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성장은 발명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인재양성과 각종 발명장려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한국발명진흥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공격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가 그간 지재권 창출, 교육, 기술평가 및 거래 등 다방면에 걸쳐 쌓아온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발전과 함께 해온 한국발명진흥회의 창립 3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발명가가 주인이 되며 대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 애하는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로 37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한국특허협회로 발족하여 1982년 2월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칭하고 이어, 1994년에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의거, 한국발명진흥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07년 4월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고객만족 경영체제로 돌입하였으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초일류 지식재산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특허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한 발명특허가족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전의 주역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지식재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이웃나라 중국에서까지도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적 이슈로 삼고 이와 관련된 우수인재 양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특허청의 강력한 발명진흥정책이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발명가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가족 여러분!

저희 한국발명진흥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발명가가 주인이 되며 대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발명진흥회는 앞으로도 발명특허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충고와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며, 21세기 대한민국 지식재산권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장 허진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상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 내 발명 산업을 주도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한국발명진흥회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973년 발족한 이래 지식재산권 활성화의 침병에 서서 각종 발명정책 지원은 물론 발명진흥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기술 산업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래 '지식재산강국'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발명가족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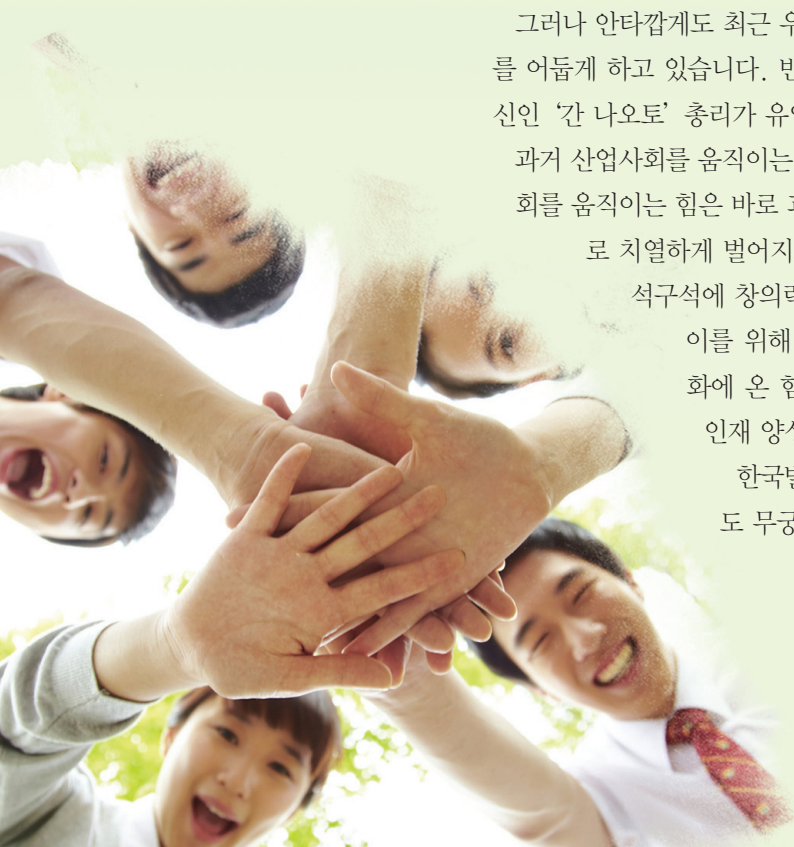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두뇌활동을 통한 지식창출과 첨단 기술연구를 위한 끊임 없는 열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 그리고 특허의 3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일본은 이공계를 전공한 변리사 출신인 '간 나오토' 총리가 유입되며 '지적재산입국'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핵연료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소'였다면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과학발전을 통한 '창의력 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식재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창의력 발전소가 생겨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한국발명진흥회와 더불어 특허와 발명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창립 37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 국발명진흥회 창립 37주년을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나긴 세월을 한결같이 우리나라 발명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발명진흥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7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커다란 저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창의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명의식의 저변확대와 발명장려의 기반을 다져온 한국발명진흥회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문화 장려,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우수발명사업화 지원, 발명인재 양성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발명가와 중소·대기업의 지식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발명진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발명진흥회는 한국특허정보원에 있어 모태가 되는 기관으로서, 오늘날 한국특허정보원이 국내 최고의 특허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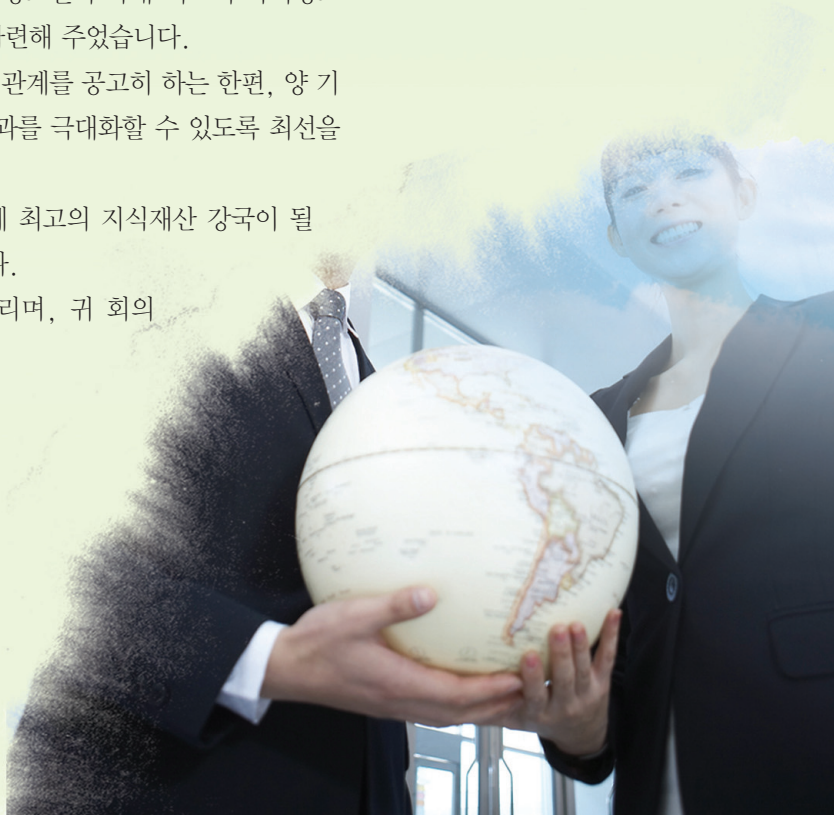
우리 원은 앞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의 더욱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발명진흥회의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장 박재천





한국여성발명협회장 한미영

초일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우뚛** 서길...

‘한 국발명진흥회’의 창립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973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명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에 발명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인재양성, 특허기술제품 판로 개척, 특허 기술 동향 조사 등의 각종 발명진흥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의 자리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식재산은 산업과 국가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창출·확산·활용·축적과 이를 권리화 하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의 성장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명이나 신기술 개발 등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뿐 아니라 개인들도 발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경제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명하고자 하는 이들의 관심과 의욕, 참여를 북돋아주고 발명 아이디어가 권리화, 제품화, 사업화되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또 발명특허기업들이 창업, 성장, 발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 역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모든 발명인과 발명 기업의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37년이란 세월은 인간으로 치면 사회나 가정의 중심으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칠 시기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발명진흥회’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발명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발명인들을 대변하고 발명 기업들을 발굴,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초일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우뚛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port

• IT 트렌드와 보안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IP5 협력동향 • 특허확대경 • 시론



모바일 인터넷과 컨버전스 시대의 보안의 역할

누구나 알다시피 애플의 혁신은 가히 혁명적이다.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보급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불러왔다. 트위터의 CEO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허브이다' 라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까지는 정보의 양이 많은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에 반론을 던진 게 트위터이다. 정보가 많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140자면 충분하다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미디어 등에 많은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 가지 키워드(스마트폰,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로 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기술 이상의 기술

첫째가 단말기. 단말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기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스마트'란 말을 왜 쓰는가이다. PC는 명령어, 기능을 익혀야 하는, 인간이 기계에 다가



가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부터는 이 많은 기능이 인간에게 다가온다. 일례로 스마트폰은 냄새 외에 모든 것을 감지한다. 볼 수 있고 흔들림도 알 수 있고. 최근 나온 4G는 레티나 익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도록 했다. 굉장히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인간적인 제품으로 와닿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이 아닌 관점에서 봐야 한다. 최근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아이폰 사용자의 40%가 여성, 킴맹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알게 된 어느 50대 여성은 아이폰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보고 미국에 있는 자녀와 채팅하는 용도로만 쓴다. 작아서 잘 보 이냐고 하니 그렇잖아도 아이패드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는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논테크니컬 사용자층에 급속히 받아들여진다.

다음 관점은 커뮤니케이션. 휴대폰은 음성 통신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더 인간적으로 바뀌며 정보, 음성, 데이터, 로데이터 등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나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바뀐다. 스마트폰 성장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같이 성장한다.

그 이유는 많은 이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강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트위터를 보면 타임 라인으로 쭉 흘러간다. 전통적으로는 문서를 만들어 파일을 만들어 폴더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고 이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했다. 이제는 무한정 돌아다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 지식으로 쓸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사이버 전쟁 기법을 보면 이런 것이 총망라돼 있다. 그들은 모바일 기기를 항상 갖고 다닌다. 정보는 저장이 아닌 가공, 리얼 타임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음성 통화는 줄고 있다. 음성보다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많아지면서 숨겨진 자투리 시간이 많아진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언

론이 긴장하는 부분이다.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휴대폰에 SW, 콘텐츠를 넣을 권한은 통신사, HW 업체에 있었는데 이것이 개방됐다. 따라서 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앱스토어가 등장하자 누구나 앱을 올릴 수 있게 글로벌화, 개방된 것이다. 어찌 보면 비즈니스 권력의 싸움이다. 더 이상 통신사, HW 업체와 중소기업이 하청구조 아닌 윈윈해야 살 수 있는 모델로 간다. 애플은 개발자에 70을 준다. 구글은 통신사에 30에, 70을 개발자에 준다. 이런 수평적 관계가 되고 생태계가 된다. 수직 아닌 수평 관계로 간다. 여기에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의해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 포인트가 컨버전스. 스마트폰에 맞는 기술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기술은 만들어져 있다. 아바타가 불러일으킨 3D를 보면 3D 기술은 50년대에, 3D TV, 영화는 70년부터 나왔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말았다. 안경이 없어 퀄리티가 떨어졌나? 그게 아니라 아바타 나오기 이전에 다른 발전 과정이 있었다. 제임스 카메론 말마따나 상상하는 것을 충분히 실감나게 보여줄 기술, 비주얼라이제이션,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이 상상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고 여기에 3D가 얹혀져 꽃핀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 기존 기술이 여기에 발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 중 작년 크리스마스에 인기 있던 앱이 드라마 음악을 인식해서 누가 불렀는지, MP3가 어떤 게 있고 유튜브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보여준다. 사실 시그널을 인식하는 기술은 80년대에 나왔다. 그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액세스가 효율적이 되면서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앱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든 기술이 컨버전스되어 나오는 것이다.

또 하나 지금은 앱과 콘텐츠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워드를 열었을 때 도큐먼트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은 완전히 별도이다. 하지만 지금은 앱을 받았을 때 콘텐츠인지 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거기다 3G, 와이파이드 상관없이 저절로 알아서 로밍하는 통합도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가 스마트폰에 영향을 준다.

클라우드, 하드웨어 투자의 한계를 푸는 해법

둘째 관점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사람에게 바로 와닿는데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바로 클라우드에 있다. 수많은 정보를 자기 전산실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는 HW 프로세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1990년대 말부터 투자를 많이 해 IT 강국이 됐지만 거기에 한 HW 투자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빠른 브로드밴드를 구축할 수 있다.

손정의 회장이 일본의 인터넷이 느리다고 한탄한 적이 있는데 올해 3월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모바일과 인터넷이 빠르고 싸다고 말했다. HW 속도에 의한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에 따라 전기(에너지) 비용도 높다. 로컬에서 CPU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성능 좋은 환경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비디오 편집을 내 PC에서 일일이 장비를 구입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서 오는 결과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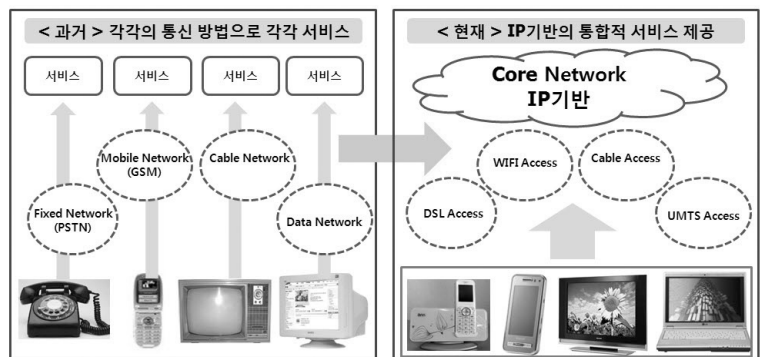
구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에너지가 싼 시골에 구축한 이유가 있다. 구글에는 검색 엔진 분야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가 시스템 네트워크 분야에 있다.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신만의 서버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결국 비용의 싸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먼 얘기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3~5년 전에 끝났다. IBM 클라우드 담당자 말로는 20% 정도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정보이고 나머지는 클라우드에 두는 게 관리와 보안 면에서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IT 부서는 효율성을 고민해 CIO가 CFO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CFO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 비용 줄이는 것과 보안이다. 보안은 고객 정보, 내부 정보, 브랜드 이미지 타격. 둘째는 비용 줄이는 것. 가능한 빌려쓰자. 이 요구에 맞는 게 클라우드이다. 여기에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클라우드에 더 많은 정보를 가공해 제공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가장 파워풀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우리나라 SNS에 없는 게 에코시스템(생태계)이다. 페이스북 안에 매우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트위터가 기존 언론보다 빠르다. 스티브 잡스가 현지에서 2시에 발표한 게 새벽에 보니 수백 개의 트위터가 날아오고 분석된 블로그까지 올라왔다. 소셜 네트워크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

지금 봐야 하는 포인트는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를 같이 고려해 어떤 가치와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것인가이다. 기존 통신사, 방송사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콘텐츠를 변환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델이 모두 인터넷에서의 앱이 된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 사업 모델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 중 광고 모델만 해도 방송사는 뉴스 앞뒤에 광고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콘텐츠만 잡아가기 때문에 광고를 콘텐츠 안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즈니스 모델도 인프라 가진 업체와 콘텐츠 제공 업체 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캐리어와 디바이스 같은 하드웨어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디지털 콘텐츠를 빨리 전세계에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과는 무관했던 애플과 구글, MS 등이 모바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PC와 휴대폰에서 진화한 것은 맞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통신사만 알고 있던 로케이션 정보 등이다. 스티브 잡스도 PDA를 출시했다 실패했다. 그 당시에는 사용자가 없어 잘 안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등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영화 '아바타'가 나오기 직전에 3D를 현실화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있었듯이 스마트폰이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유명한 고등학생이 있다. 그는 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미 교통에 대한 많은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린 것뿐이다. 한 명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베스트바이 같은 곳은 자신의 제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인터넷에 공개를 해놓았다. 때문에 고객은 자신이 찾는 물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빠르게 알 수 있다. 만약 점포 직원에게 물어본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V와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가치는 모두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스마트폰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컨버전스된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구글이나 애플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플랫폼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비록 시작은 스마트폰에

서 했지만 수많은 모바일 기기와 심지어는 가전제품에도 적용된다. 결국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유통되는 마켓과 수많은 스마트 단말기, 그리고 정보가 삼각 축으로 구성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 코드,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

결국, 컨버전스 시대의 변화 코드는 한 마디로 지축이 흔들리는 변화이다. 일부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미디어, 인프라, 정책, 더 나아가서 문화까지 확산된다. 점점 개인화, 수평화하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표준도 바뀌고 있다. 애플이 플래쉬를 안 쓰겠다고 선언했다. HTML5 파일을 표준으로 정해 그것으로 개발하고 있다. 액티브X나 플래쉬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도 빨리 HTML5 환경으로 가야 하며 SW 플랫폼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HW보다 SW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도시화로 모바일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IT를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기획/품질 테스트는 물론 보안성을 높이고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는, 일련의 서비스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의 몰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는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SW 플랫폼과 인프라의 문제는 SW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에게 제공 받고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통신사를 선택한다. 그럼 사용자가 보안이나 제품의 문제에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이런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리버럴하다.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바로 그것이 현재 변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보급은 페이스북, 트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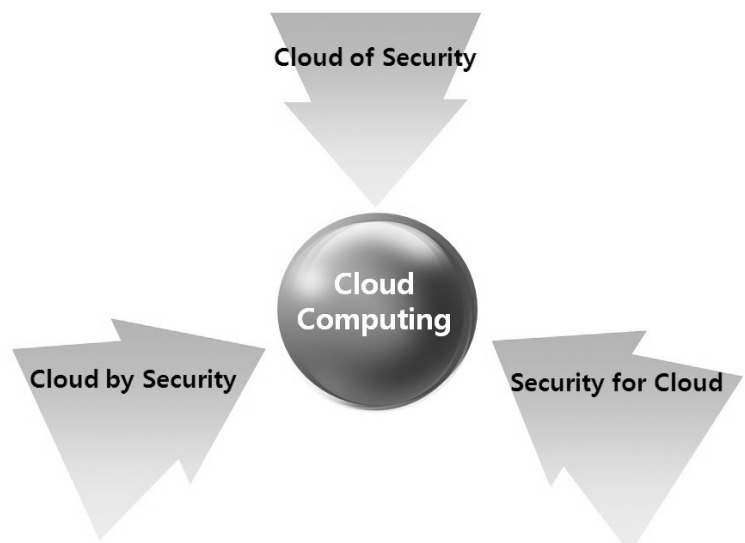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를 불러왔다. 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 가지 키워드-스마트폰, 클라우드, 소셜 네트워크-로 읽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되게 하는 것은 결국 보안 업계의 임무라 하겠다.

먼저 스마트폰 보안을 보면 원론적으로 PC에서 일어나는 보안 이슈가 다 스마트폰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PC 보안 사업 초기에 위협이 있을 것은 인지했지만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5년을 기점으로 해킹의 조직화에 따라 보안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보급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지, 또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표준이 될지,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모든 상상은 사실 의미가 없다. 스마트폰 보안을 인지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보안이 핫 이슈인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SW 플랫폼을 잘 설계하는 것이 보안의 첫 걸음이다. 우리나라의 보안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 나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나서 그 후에 보안을 하기 때문이다. 잘못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개발사 모두를 힘들게 한다.

한편, 우리는 스마트폰과 보안 이야기를 할 때 '위협'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을 혼동한다. 언론이나 어떤 발표를 보면 해킹을 시연해 위험성을 경고한다. 사실 해킹이나 암호를 깨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그 정도의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이다. 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공유되어도 되는 것과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최고 기밀 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보안을 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기업 및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DDoS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스마트폰 보안 이슈도 차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SD 카드나 PC 감염 등의 종합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주목받는 키워드가 클라우드이다. 클라우드와 보안의 관계는 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한 보안 솔루션이다. 한 달에 100만 개 이상씩 발견되는 악성코드를 모두 사용자 PC에서 처리하면 부하가 크기 때문에 서버에서 제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그 속에 많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더 정교하고 정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 각 PC와 스마트폰, DDoS 차단 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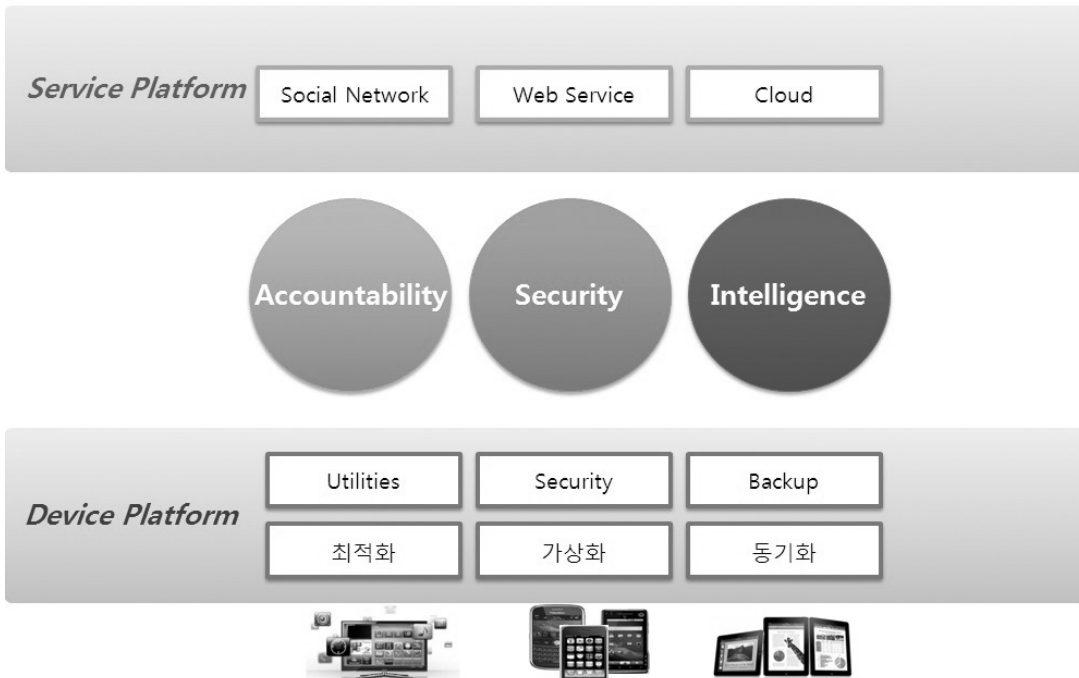
둘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의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으로서 자동화한 위험 탐지 및 대응 체제와 보안 관제 서비스가 해당한다.

셋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할 때 필요한 보안 기술이다. 기존 컨셉, 기존 제품으로만 보지 않고 다시 분해하고 재조합해 각 트렌젝션이나 단계 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방위 대응 능력, 보안 표준 업데이트,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IT 인프라의 변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컨버전스라고 할 수 있다. 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음성,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를 복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컨버전스 시대에는 보안도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하드웨어,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쓸 것을 찾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정하고 통신사를 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애플과 구글의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들이 만든 슈퍼 플랫폼 아래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콘텐츠와 단말기가 교류하도록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보안의 역할이다.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를 폭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UX(user experience), 속도 등의 사용편의성과 실질적 보안 성능을 보아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지 않은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도입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는 5년 전부터 미국의 CIO들이 고민하던 것이다. 사실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웹 메일이나 스마트폰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 기밀을 다루는 구성원과 일반 구성원을 세분해 전자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제작된 블랙베리를 쓰듯이 별도 조치를 하는 등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 사고 소프트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현재의 플랫폼은 클라우드, 웹,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이런 플랫폼이 각종 디바



이스와 맞물려 돌아간다. 예를 들어 교육 측면을 보면 이미 많은 교육 자료가 디지털로 저장됐고 BBC나 디스커버리 채널의 많은 자료도 멀티미디어로 제작되어 있다. 디바이스만 나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로, 밖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집에서는 PC로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TV로 보게 된다. 필자는 아마존 킨들을 갖고 있는데 킨들에 있는 것을 아이폰, 아이패드, PC에서도 본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이다. 어느 디바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그 다음에 고민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측정할 수 있고 추정 가능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느냐이다. 가령 모바일 오피스를 만든다면 허용할 수 있는, 허용해야 하는 디바이스를 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등을 오픈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고 추적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때, IT 부서가 정책을 만들어 공지하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교육하는 수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체 업무를 수평적인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보안 기술이 다른 소프트웨어나 IT 기술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라우터는 테이블에 저장된 것을 다른 곳에 보내기만 하면 역할이 끝난다. 그러나 방화벽이나 IPS, DDoS 방어 장비 등의 보안 제품은 수많은 패킷을 다 분석해야 한다. 다른 소프트웨어는 로직을 따라가면 되는데, 보안은 각 콘텐츠의 가치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IT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안 소프트웨어이다.

더욱이 보안 기술은 얼마든지 외연을 확장해 다양한 서비스나 하드웨어와 접합될 수 있다. 보안 제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와 컨셉이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와 디바이스에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안이고 사용자를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예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큰 변화이다. 엔지니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보안은 외부의 위협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플랫폼에 스며들어서 투명하고 추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모바일 인터넷과 컨버전스(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고려할 요점이다.



김 홍 선

- (현)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 안철수연구소 기술고문, 연구소장 및 CTO
- 유니포인트 경영고문
- 시큐어소프트 설립 및 대표이사
- 미국 TSI사 Business Development 부사장
- 미국 텍사스주립대 연구원
-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 선임연구원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발

공개공보 [지재권일반] • 지식재산권의 출원, 공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특허청의 공식적인 문서.

공개/광고번호 [지재권일반] • 심사 전후에 출원을 공개할 때 출원에 부여되는 번호

공개(exposure) [지재권일반] • 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공개 키 기반구조 [저작권] •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안시스템 환경. 즉, 암호화와 복호화 키로 구성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인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

고의적 침해 [법일반] • 침해자가 문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침해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가 성립됨. 미국의 경우 고의침해는 징벌적인 3배 배상의 판단근거가 되며, 고의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변호사의 비침해 혹은 무효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함.

고위관리회의 [일반] •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 협의기관.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매년 5회 개최하며, CTI 및 ECOTECH 등 4개 위원회와 기타 산하기구의 논의상황을 검토하여 상급회의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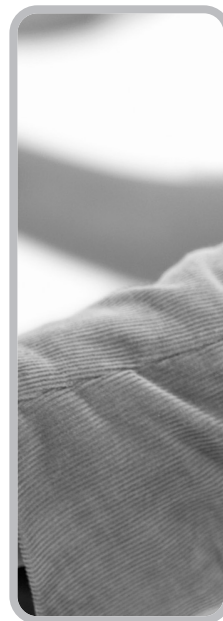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산

식

지

특허 선진5개 특허청(“IP5¹⁾”) 협력 최근 동향



세계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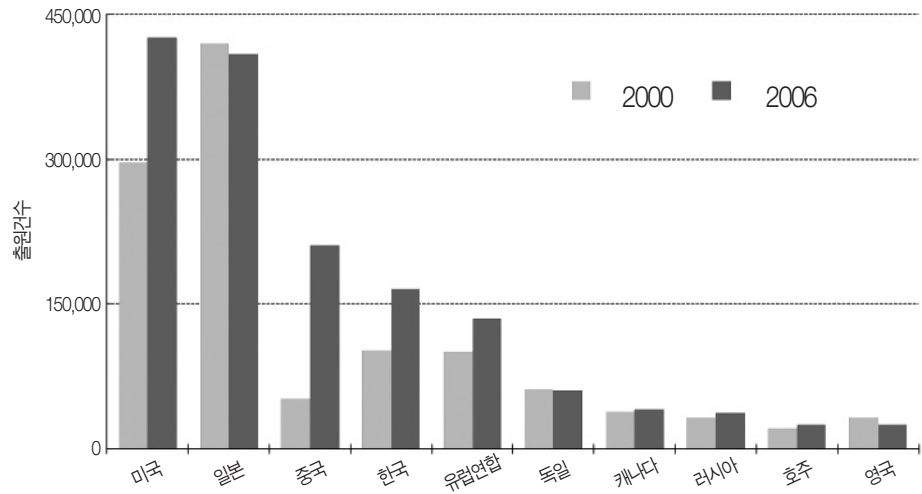
2010년 9월 15일 발간된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²⁾)의 특허보고서³⁾에 의하면 '08년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는 19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전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995년 이래 200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5%를 넘는다.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은 증감이 없었고, 한국 1.1%, 일본 1.3%, 중국은 18.2% 증가세를 보인 반면, 영국은 6.5% 감소세를 나타냈다. PCT 국제출원은 '09년 중국이 29.1% 증가하였으나,

1) Intellectual Property 5, 지식재산 분야의 G5를 의미하며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5개 특허청을 지칭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3) World Patent Report : A Statistical Review 2010, A Statistical Review는 '06년부터 매년 WIPO가 세계 특허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발간한 통계연차보고서로서 '10.9.15 2010년판을 공식 발표함



〈전 세계 특허출원 현황 (1985년-2006년)〉

미국 10.8%, 독일 11.3%, 스웨덴은 13.4% 감소하여 PCT 시스템 도입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4.5%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IP5 특허청으로 대표되는 선진 5개 특허청으로부터의 출원은 1,453,943건으로 전체 출원의 76.2% 차지했다. 동 보고서는 선진국과 특허출원 비율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데, 선진국(High income economies)의 특허출원 비율(74.1%)은 GDP 비중(58.7%)에 비하여 15.4% 높음이 특징이다.

특허출원의 국제화도 계속되는 추세이다. 즉, 타국에의 출원 비중 증가 등 특허활동의 국제화가 증가되고 있는데, 타국에의 출원 비중이 '95년 35.7%에서 '08년 44%로 2.6% 증가했으며, 이는 '08년의 경우 44%의 출원인이 자국 외의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했음을 보여 준다.

외국인(non-residence) 출원은 일본은 전 세계의 26.3%, 미국 21%, 중국 10.7%, 한국 9%, 독일은 7.1% 차지했으며, 중국 출원인은 외국에서 출원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멕시코, 태국, 페루 등 개도국은 외국에서의 출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국제적인 특허출원의 급증현상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대표되던 국가 간 무역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선진국은 이제 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지재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Pro-IP Act) 입법 및 지식재산 집행조정관(대통령실) 신설('08)
	•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 및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3) 등을 통해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추진
	• '국가지재권전략 강요' 수립('08) 및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혁신 국가 3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채택('09, 제11차 全人代)
	•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 추진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

바꾸어 말하면, 각국이 세계주요시장에서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세계특허출원의 증가와 출원의 글로벌화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특허출원의 증가는 각국의 특허심사적체(patent backlog)⁴⁾를 가중시키고 특허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특허심사적체는 출원증가와 함께 기술의 진보와 복합기술 출원의 증가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 방어적 목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사례의 증가를 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최근 일부 출원인이 ‘특허출원 중’ 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사결과가 늦춰지도록 하는 경향도 심사적체의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심사 적체는 출원인의 비용증대와 및 특허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심사 부담 증가로 인한 특허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특허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쟁업체의 연구 리스크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10년 3월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국 특허청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3국 특허청(EPO, JPO, USPTO)에서 심사 대

기기간이 1년 증가하면 13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허청 간 심사결과를 상호활용(mutual recognition)함으로써 중복출원의 60%에 대해 심사결과 상호활용이 이루어지면 5년 후에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심사적체기간이 48% 감소한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IP5 특허심사공조(work-sharing) 체제의 출범

국제적인 특허홍수(patent flooding)라 불리는 세계적인 특허 출원 증가로 인해 심사적체, 심사처리 기간 장기화, 부실특허 허여, 특허 분쟁 등의 문제 발생 등 현안은 개별 국가의 특허청이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일 발명의 복수 국가 출원으로 인한 중복 심사 업무(duplicated work) 해소를 위해 국가 간 업무공조(Work-Sharing)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83년부터 3국 간 협력(tri-lateral cooperation) 체제를 가동해 왔던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한국, 중국 특허청을 포함한 5개 특허청장들이 ‘07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5개국 특허 협력 체제를 출범하기로 합의하였고, 지재권 분야가 당면한 세계적 위기 상황 및 업무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08년 10월에는 한국 특허청 주도로 제주도에서 제2차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IP5 간 특허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큰 그림과 구체적 실현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5개 특허청 간 특허심사 공조·협력(work-sharing)의 구체적 비전으로서 5개국 간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의 안정성 확보가 채택되었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심사결과의 ‘품질(Quality)’ 및 ‘적시성(Timeliness)’의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비전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10대 기반 프로젝트(10 Foundation Projects)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World Patent Report : A Statistical Review 2010에 의하면, 심사 미착수건(potentially pending application)의 지속적 증가
 • ‘08년 잠재적 심사 미착수건은 594만 건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
 - 일본 237만 건, 미국 125만 건, 유럽 58만 건, 한국 47만 건 순임

주도국	기반 프로젝트(Foundation Project)
유럽(EPO)	특허분류, 특허문헌 검색DB
일본(JPO)	특허출원서식, 심사결과 공유시스템
한국(KIPO)	특허심사관 훈련정책, 외국어 자동번역
중국(SIPO)	심사실무·품질관리 지침, 특허통계지표
미국(USPTO)	심사 지원도구, 검색전략 공유

〈IP5 10대 기반 프로젝트 현황〉

IP5 특허청 간 협력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 → ‘고위급(차장급) 회의’ → ‘IP5 청장 회의’ 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반과제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관성 높은 과제끼리 clustering하여 cross-functional 실무그룹(WG: Working Group)을 구성함으로써, 특허분류(WG1), 특허행정 정보화(WG2), 특허심사정책(WG3) 3개 분야의 기능별 실무그룹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IP5 특허청 간 심사노하우 공유 및 심사실무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제1회 IP5 심사관 워크숍이 한국 특허청 주최로 대전에서 개최(‘09.10.20~23)되었으며, 이후 IP5 심사관 워크숍이 정례화되어 제2회 심사관 워크숍은 유럽 특허청(EPO) 주최로 ‘10.10.2 ~ 9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각국의 실제 선행기술 검색과정을 라이브 서치(live search)로 보여주면서 5개국 특허청 간 상호 심사실무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전망이다.

국제 특허 심사공조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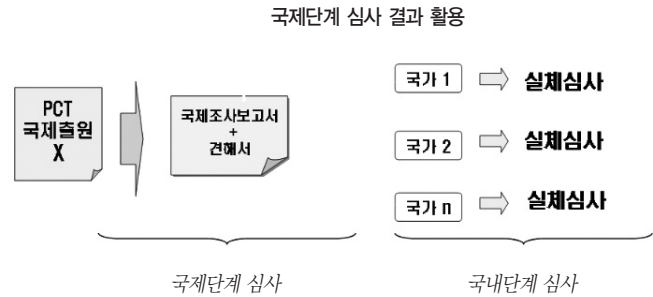
IP5 특허청 간 특허 심사공조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특허협력조약(PCT⁵⁾), 특허심사하이웨이(PPH⁶⁾), 전략적 신속심사(SHARE⁷⁾)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모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여러 특허청 간에 특허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가능케 한다.

5) Patent Cooperation Treaty
 6) Patent Prosecution Highway
 7)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a. 최초의 업무공조(work-sharing) 프로그램: PCT 제도

각국의 중복심사 제거를 위한 방안으로, 1970년 PCT제도 탄생(‘78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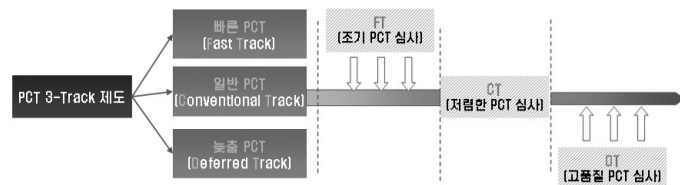
-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심사 제거로 효율적인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PCT를 통해 하나의 국제단계 심사결과가 여러 국가의 실제심사에 활용



PCT는 1970년에 체결된 이래 큰 제도의 변경 없이 약 40년간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급변해 가는 국제경제 및 기술환경에 따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09년 5월 WIPO에서 개최된 PCT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PCT 3-track 제도라는 PCT 개혁안을 제시했다. PCT 3-track 제도란 PCT 국제 특허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출원인이 빠른 심사·일반심사·늦춤심사의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속한 권리획득을 원하는 출원인은 빠른 심사를, 저비용으로 PCT 절차를 밟고 싶은 출원인은 일반심사를, 국제단계를 연장하고 고품질 국제조사를 받고 싶은 출원인에게는 늦춤심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08년 9월 WIPO 연례 정기총회에서 특허법의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는 WIPO 산하 B+ 그룹에 가입했다. 따라서, PCT 3-track 제도는 우리나라가 B+ 그룹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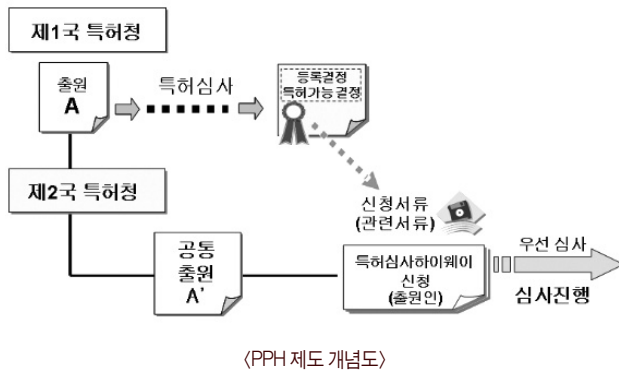
(PCT 3-track 제도 개념도)

b.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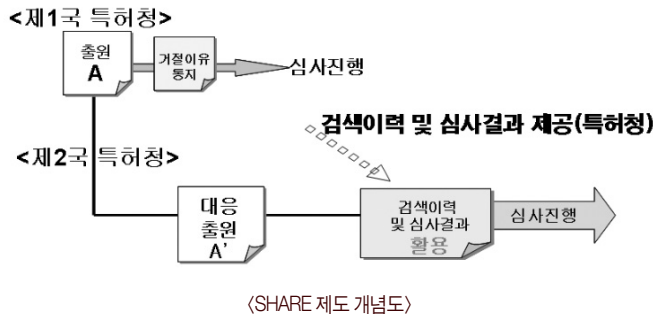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제1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제2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 특허청은 '08년 미국, 일본과 PPH를 시행한 이래, '10. 9월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 캐나다, 영국, 러시아, 핀란드, 독일을 포함하여 총 8개국 특허청과 PPH를 시행하고 있다.

- 양국의 공통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 제2국은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조기 심사하는 제도
⇒ 선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제거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c. 전략적 신속심사(SHARE: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s for Rapid Examination)

- 제2국이 양국의 공통 출원에 대하여 제1국의 심사정보[검색이력 및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 타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제거하고 심사품질을 제고
※ '07.11월 3국 회의에서 미국이 처음 제안한 후, '09.9월 최초로 한-미간에 시행



전략적 신속심사는 국가 간 심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협력 제도. 제2국이 양국의 공통 출원에 대해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제1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한미 특허청 간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및 연료전지분야에 대해 '09.9.1.부터 1년간 시범실시 중에 있다.

IP5 체제의 성과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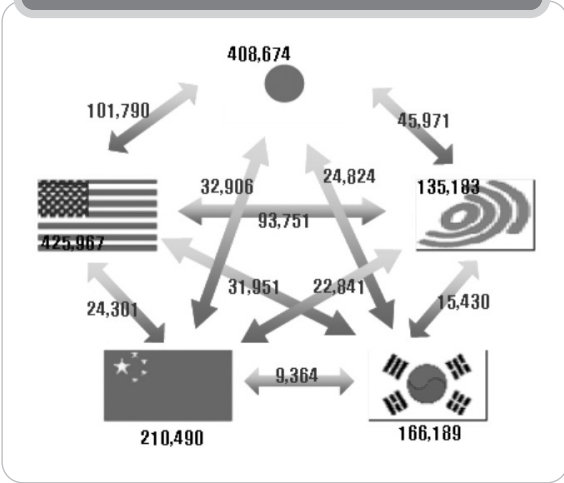
한국 특허청의 IP5 선진 특허청과의 성공적인 특허심사 협력체제에 정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지난 25년간 미·일·유럽 특허청 간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지재권 국제질서 체제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5국 체제(특허의 'G5')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재권 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특허심사 환경의 완전 개방과 대외적 주시로 인한 관련 법·제도, 시스템, 심사역량의 글로벌화 및 이를 통한 선진화 효과가 예측된다.

더불어 상호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기간을 앞당기는 심사공조 프로젝트인 "특허심사하이웨이"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조기 획득 및 출원 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허획득에 평균 26개월이 걸리나, 국가 간 심사 협력을 통해 약 4개월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첨단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 특허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개청 간 중복출원 현황(2006)



(IP5 특허청간 중복출원 현황)

또한 2010년 1월부터 IP5 공통출원서식 (CAF: Common Application Format)이 도입되어 우리 특허 출원인이 사용하는 양식이 미·일·유럽에 그대로 통용되게 됨으로써 우리 출원인의 해외 특허 출원 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의 강한 특허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특허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대외 신

인도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부수적인 효과라 할 것이다.

IP5 특허청의 시장은 전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시장이며 동일기술이 이들 국가에 중복 출원되는 건수가 연간 약 40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중복 특허를 심사할 때 상호 간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적체를 줄이고 심사처리를 앞당긴다면, 글로벌 지재권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8만 건이 넘는 특허출원건수를 자랑하며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10년 9월 WIPO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많은 개도국들로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 제도를 리드하고 형성하는 Rule Maker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지재권 제도·시스템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진정한 지재권 선진그룹의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때가 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2010년 8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됨과 동시에 IP5 협력체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IP 강국 코리아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진석

현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정, 심판관, 심사관 역임
영국 셰필드 대학교 법학박사(특허법 전공)

상표권 소진이론 및 병행수입에 관한 국내외 비교법



- I.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 1. 진정상품의 의의
 - 2. 병행수입의 의의
 - (1) 병행수입의 문제
 - (2)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 (3) 병행수입의 효과
- II. 병행수입 금지이론과 허용이론
 - 1. 금지이론
 - (1) 속지주의원칙
 - (2) 특허(상표권) 독립의 원칙
 - 2. 허용이론
 - (1) 권리소진이론
 - (2) 상표기능론
- III. 각국의 제도비교
 - 1. 미국
 - 2. 유럽
 - 3. 한국
- IV. 연구판례
 - 1. 타인상표 새겨진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소진범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 3445 판결)
 - 2. 병행수입과 광고허용의 한계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 42322 판결)
 - 3. 병행수입의 상표권침해 여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 61965 판결)
- V. 결론

IV. 연구판례2. 병행수입과 광고허용의 한계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 42322 판결)

1. 사실의 개요

(1) 당사자 원고 버버리 리미티드 (이하 ‘원고 버버리’라 한다)는 주로 고급 의류 및 핸드백, 가죽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세계적 회사로 현재 전 세계 약 123개국에서 1,154개의 “BURBERRYS” 문자 상표 등 이 사건 표장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복, 코트, 셔츠,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21개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유로통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유로통상’이라 한다)는 1986. 12.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고 버버리와 독점적인 수입·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표장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후 전국적으로 면세점 및 백화점에 매장을 개설하여 원고 버버리의 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대규모의 광고·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1996년에는 3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이엠씨)는 1996. 7. 6. 의류 수출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버버리의 본사가 있는 영국 등에서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른바 ‘진정상품’)을 직접 수입하여(이른바 ‘병행수입’) 서울 강남의 직영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모집하여 수입 제품을 국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제1심 피고 이영희, 김옥숙 등은 원고 버버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영업소나 매장 전면 간판에 이 사건 표장과 거의 동일한 표장을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내부의 벽에도 위와 같은 표장을 붙이거나 그러한 표장이 사용된 포스터 및 선전광고물을 부착하고, 포장지나 쇼핑백, 직원들의 명함에까지 위 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한편, 의류잡지에 위 표장이 포함된 선전광고를 게재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유로통상이 운영하는 독점 판매 대리점과 피고의 매장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지어 피고 또는 그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원고 유로통상 측에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2) 원고는 원고 버버리의 진정상품을 병행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피고가 위 원고의 상표이자 원고 유로통상의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장을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매장이 원고 버버리의 공인대리점이거나 위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 등 어떠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바, 이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였고, 피고는 오늘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이상, 병행수입품에 대한 선전·광고 차원에서 상품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상표권 비침해 판단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인 피고가 문제된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내·외부 간판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 사용 광고한 이 사건 표장이 원고 버버리의 등록상표들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이 생길 염려가 없고 또 피고가 수입한 상품이 원고 버버리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품인 이상 국내 독

점적인 수입·판매 대리점인 원고 유로통상이 원고 버버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및 외부 간판 등에 그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 행위 판단

그렇지만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1) 상표기능론

병행수입 긍정론으로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미 상표가 붙여진 상품에 대하여 새로이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더라도 “출처의 혼동 및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품에 최초로 상표를 붙인 상표권자의 권리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기능으로서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을 들고 있다.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상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상품의 광고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판시하였다.

(2) 광고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²³⁾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보호의 대상 및 요건, 보호권의 발생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법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고 선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국내 판매원과의 영업의 혼동 또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품질오인이라는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타인의 영업과의 혼동가능성”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

23) ① 타인의 영업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용하여야 하고(영업표지 該當性)

② 그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며(영업표지의 周知性)

③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영업표지의 同一 類似性)

④ 타인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混同可能性)

및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따라서 “명함”의 경우에는, 피고의 대표자 또는 직원들이 명함에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도안을 넣어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명함을 교부받는 제3자가 그 명함의 소지자를 원고 버버리의 국내대리점의 구성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외부간판”의 경우에도, 이 사건표장만으로 된 간판을 매장 입구 또는 외부에 설치하거나 매장의 전면 외벽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고객으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인 피고의 매장을 원고 버버리의 국내대리점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포장지, 쇼핑백, 매장 내부의 간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마치 원고 버버리의 국내대리점인 것처럼 오인을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선전광고물”의 경우에는 매장의 벽에 부착하거나 각종 잡지에 게재하는 행위에 의하여 피고의 매장의 국내대리점인 것처럼 오인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현재 마케팅의 추세는 포장지나 쇼핑백이 단순히 상품을 포장,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 광고, 선전 등의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주체오인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만일 잡지 등에 이 사건 버버리 표장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별도 상호를 같이 병기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그 관련성을 광고한 경우에는, 피고의 영업을 원고 버버리의 국내 대리점으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영업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오인혼동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시장에 있어서의 거래자 또는 통상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품의 유통경로, 소비자의 인식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범위 및 국내 판매에 있어서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상충되는 두 가지 이익, 즉 상표권자(및 그 전용사용권자 등)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주지 상표로 만들고 독자적인 신뢰(goodwill)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반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을 지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과 같이 외국 저명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이 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병행수입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 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준다면 해당 상품의 국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 지명도를 가진 브랜드 메이커들이 국제 시장을 분할하여 별도가격을 책정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고가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 및 그 광고의 허용범위를 넓혀 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에게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병행수입에 관한 광고허용범위에 관하여는 혼동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기준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IV. 연구판례3. 병행수입의 상표권침해 여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 61965 판결)

1. 사실의 개요

(가) 이탈리아인 소외 까메리노는 화장품, 의류 및 패션 관련 지정상품에 이 사건 표장의 국내 상표등록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위 상표권자와 이 사건 표장의 각각의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의 설정계약을 마쳤다.

(다) 위 이탈리아 상표권자의 이 사건 표장의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용품 등에 관한 일본국 내에서의 생산·판매를 위한 독점적 실시권 내지 재실시권을 일본 엘 마크에게 부여하였다.

(라) 엘 마크는 일본 에스테도와 사이에 위 독점적 재실시권에 근거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방향제, 쿠션, 카매트 등을 공급하되,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외국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에스테도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에스테도는 위 계약을 위반하여 대구에서 자동차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된 엘 마크의 자동차용 방향제, 방석, 쿠션, 카매트 등 자동차용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수출하였다.

(마) 채무자는 에스테도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수입하여 '스포랜드(Spoland)'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매장 내부의 벽, 직원들의 명함 등에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자동차 전문 월간잡지인 "자동차 생활과 카 비전"(Car Vision) 2001년 2월호에 각 이 사건 표장을 부착한 상품사진과 함께 '자동차용품 전문수입업체', '한국수입총판'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채무자는 먼저, 채권자가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지정상품과 채무자가 수입, 판매하는 이 사건 상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의 범위가 채무자의 이 사건 상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가사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2. 하급심 판결사항

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 않는다.

이 사건 상품은 일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되어 판매된 것이니 만큼,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이라 할 것이나, 에스테도가 일본국 내에서

만 판매하기로 한 엘 마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그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전용사용권 침해

채권자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한 후 이 사건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판매를 위한 선전, 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일본국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그와 같은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사 채무자가 수입,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이 진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병행수입행위는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 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 하였어야 하고, (2) '그 외국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어야 할 것이며, 한편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를 부착한 이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 상품이 판매 내지 수출되었더라도 그러한 약정 위반만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4. 본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병행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병행수입의 요건을 정면으로 언급한 판례이고 나아가



판매지 제한약정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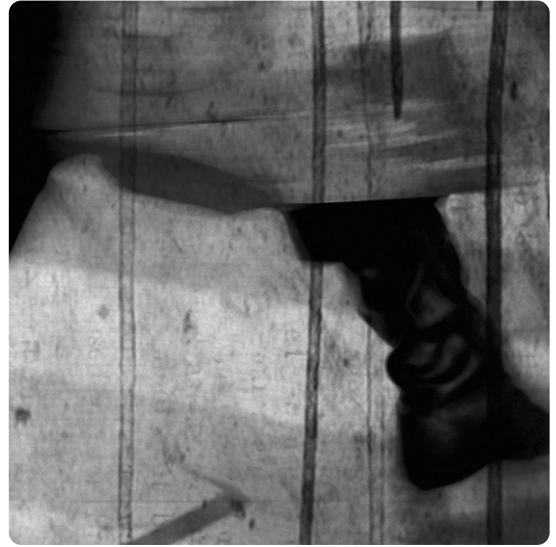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 세계적으로 무역시장이 개방되고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물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병행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에 한하여 동일 상표권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인하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상표사용자의 신용·수요자의 이익)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품질보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병행수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권리자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의 최후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용 상

LG전자 특허센터 부장
연대 법무대학원 석사수로
인하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지식재산시대의 도래

발명의 역사와 발명가의 과제

한 국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지식재산능력시험이 다음 달에 실시된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 및 특허에 대한 관심과 산업계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로써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허제도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가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센티브로서 부여하는 것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타인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는 의미를 잃는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발명가들이 자신의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도 변해왔으며, 이 글에서는 각 시대별로 유명한 발명가들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의 발명가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발명가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활동한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이다.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아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최초의 발명자본가(invention capitalist)이며, Edison General Electric사를 창업하였다.(나중에 Thomson-Houston사와 합병하면서 오늘날의 General Electric이 만들어짐) 이 시기의 발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특허를 자가실시하여 돈을 벌



었다. 에디슨과 비슷한 발명가로는 세계최초로 복사기를 발명한 체스터 칼슨(Chester Carlson)이 있다. 그는 미국대공황 시절 직업을 얻지 못하다가 배터리 제조회사의 특허부에 입사하였는데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손으로 사본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다. 칼슨은 광전기(photoconductivity)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 건식복사기의 원리를 발견하고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몇 년에 걸친 갖은 고생 끝에 건식복사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지만 상업화를 위해 IBM, Kodak, GE 등 20개가 넘는 기업을 만나서 요청한 자금은 전부 거절당하고(2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기업들이 어려운 시절이었음) 1944년 40%의 지분을 약속받고 바텔 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 특허를 넘겼다. 이후 할로이드(Haloid)사에 특허가 라이선스 되어 건식복사기가 생산되었고, (1958년 Haloid사는 Xerox로 이름을 변경) 칼슨은 1968년 사망 전까지 \$ 150 million(현재 기준으로 약 1조 원)을 제록스로부터 받았으며, 이 중 2/3를 기부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복잡해지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혼자 힘으로는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였고, 발명가들도 전략을 바꾸게 된다. 즉, 자신의 특허를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하고 기술료를 받거나 무단사용하는 기업을 찾아 특허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식을 택하는데, 자동차용 간헐식 와이퍼를 발명한 로버트 컨스(Robert Kearns)도 이 중 한명이다. 영화 "Flash of Genius"를 통해 소개된 컨스는 1963년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하는 회로를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알게 된 포드사에서는 납품을 제안하고 컨스는 제품생산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포드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특허를 도용하여 1969년 신형 무스탕에 간헐식 와이퍼를 장착하여 출시하게 되었으며, 컨스는 약 10여 년간의 긴 법정소송 끝에 승소하여 포드사로부터 \$10 million, 크라이슬러사로부터 \$ 30 million을 받게 된다. 영화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컨스의 발명이 기존부품의 조합에 불과하며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가 무효라고 공격하는데, 컨스는 찰스 디킨스의 책을 꺼내들고 "이 책에 있는 단어들은 모두 사전에 나와 있고 디킨스가 한 일은 단어들 배열한 것 뿐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멋진 반론을 통해 승소한다.

한편 라이선스를 통한 성공케이스도 나오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리 코헨(Stanley Cohen) 교수와 UC샌프란시스코 대학의 허버트 보이어(Herbert Boyer) 교수는 1973년 DNA 재조합(Recombinant DNA) 기술을 발명하고 스탠포드 대학 명의로 특허출원하여, 1980년 특허등록 이후 17년 동안 400여 개 제약회사에게 특허라이선스를 허여하고 \$ 250 million 이상의 기술료를 받게 된다. DNA 재조합기술은 예를 들어 소, 돼지의 체장에서 추출하던 인슐린을 대장균 배양을 통해 생산할 수 있게 만든, 제약업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기술이다. 허버트 보이어 교수는 타임지 표지인물로도 등장하였으며, 자신의 기술

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제넨텍(Genentech)사를 설립하여 연 매출 4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제넨텍은 작년 로슈제약에서 \$ 47 billion에 인수하였다.

기업 CF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특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낸 발명가인 에디슨은 기억하지만 5위에 해당하는 제롬 레멜슨(Jerome Lemelson)이란 이름은 특허소송 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기계공학도인 레멜슨은 산업용 로봇, 팩스, 무선전화기, 비디오테이프 등을 발명하여 60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한 발명은 1954년에 출원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라인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이동되는 부품의 불량률 감지하는 특허이다. 이 당시 미국특허법은 출원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여 출원하면 원출원일을 유지하는 계속출원을 인정하였으며 레멜슨은 매년 개량된 내용을 추가하다가 마침내 부품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인식하여 분류하는 발명을 하게 되고, 원출원 이후 36년이 지난 1990년 더 이상의 계속출원 없이 특허가 등록된다.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그만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80년대 말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생산라인에 바코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레멜슨은 특허등록 이후 이들 회사들에게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 1 billion 이상의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8년간 대미수출액 중 0.3%를 기술료로 요구하였고, 협상을 통해 총 150억 원을 받아갔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건 미국 특허시스템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심사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가 공개되지만 이 당시 미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어야 공개되었고 계속출원중인 특허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특허검색을 철저히 하더라도 레멜슨의 특허는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미국특허법이 개정되어 오늘날과 같은 제도로 바뀌었으며 흔히 잠수함 특허라고 부르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레멜슨은 이 밖에도 1961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 집적회로에 대한 특허를, 1974년 소니(Sony)사에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특허를, 1981년 IBM사에 위

드 프로세싱에 대한 특허를 라이선스 하였다. 레멜슨은 1993년 재단(Lemelson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레멜슨 재단은 MIT와 공동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발명을 선정하여 수십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젊은 발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사회는 제품만 잘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팔리는 시대이다. 특허를 라이선스하는 경우에도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소비자(기업)가 필요로 하는 특허라서 라이선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즉 자기가 직접 제품을 만들던 아니면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하거나 소송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특허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 특허의 유용함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침해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이른바 “힘있는 특허”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은 발명과는 별개로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발명가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장치인 이더넷 카드(ethernet card)를 발명하고 후에 3com사를 설립한 Bob Melcalfe (전기회로 분야에서 메켈프의 법칙으로 유명한 공학자)는 1999년 MIT Technology Review에 발표한 글에서, 흔히 발명가는 아이디어만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발명을 한다는 행위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발명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제목은 “Invention is a flower, Innovation is a weed” 지식재산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모든 발명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명언이다.



조서용

(현)서울대학교기술지주(주) 기술사업화실장
(현)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회사운영지원부장
(전)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재) 기술기획실장
(전)세렉트론(주) 대표이사

Column

- 셀프리더십 • 책과의 만남 • 성공전략 • 포커스 • 특허Q&A • Zoom In
- 발명특허 기네스 • 특허경영전략 • 발명 365 • 시선집중 • 문화산책



성공을 향한 우선순위

비 · 풍 · 초 · 풍 · 팔 · 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언뜻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다. 사실 연관성 뿐 아니라 형이상·하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장소와 수준과 규모의 격차가 있는 말이다. 음습한 골방에서 질펀하게 펼쳐지는 노름판에서조차 버려야 할 패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국가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다.



‘피플 스킬 People Skill’의 저자 레스 기블린(Les Giblin)은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단어를 ‘나는 ~’, ‘제가~’가 아니라 ‘당신이~’ ‘선생님께서~’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모든 사람은 ‘나 자신(self)’에 유일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입대 경쟁률이 3:1 ~ 9:1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해병대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지원해 가는 이유가 일명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나(self)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몰입에 분명하다.

이렇게 '나 자신(self)'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경영, 자기관리에는 소홀하다.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큰 돈을 벌며 성공하는 사람도 자기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낙마하게 마련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2000년 도입된 이후 이번까지 11명이 청문회에 걸려 낙마했다. 낙마 이유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병역 기피, 탈세와 이런 비리를 숨기려다 나온 거짓말이다. 대부분이 정직과 자기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복권과 같은 갑작스런 행운을 손에 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ABC 뉴스에 의하면 복권 당첨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브 데니시는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들을 쫓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온전히 갈라지지 않고 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키네스 파커와 코니 파커는 2천5백만 달러 잭팟을 터뜨려 황재했다. 대신 이들은 16년간 지속했던 부부 사이에서 돌아섰다. 제프리 템피어는 2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얼마 안 가 형수에게 유괴되고 살해되었다. 2002년 잭 휘태키는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개인 당첨금 수령을 기록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약 5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도박과 음주 혐의 체포, 강도와 도난, 손녀 딸의 죽음 등으로 인생이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는 성공은 이루기 어렵고 이룬다 해도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 꾸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신입사원 시절 350여 명의 입사 동기 중 그리 우수한 그룹에 속



하진 못했다. 지극히 평범했고, 학점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기란 축구를 약간 하는 것 외엔……. 그렇게 시작한 10여 년의 조직 생활에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회사를 통해 배운 '자기관리(셀프리더십)' 였다.

이후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3년 6개월간 보험 세일즈를 경험했다. 첫 달 급여 1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평균 수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 영업 조직에선 실적이 좋으면 존경(?)을 받는다. 수많은 지점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비결을 이야기 해 달라고…….



비밀한 고수의 비결은 없지만 나만의 20여 년 자기 관리 노하우를 이야기한다. 그랬다. 20여 년간 시간의 가계부를 지금껏 써 왔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보단 나 스스로의 목표(평생목표, 연간목표, 월간목표, 주간목표, 일간목표)를 종이에 써 관리했고, 약 150여 권이 넘는 지식 바인더(매뉴얼)를 만들었으며, 업무와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수첩(바인더)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했다. 미려한 곰처럼 20여 년간 해 온 자기관리가 주변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도구와 세미나로 만들어졌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또는 이론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토마스 J. 스탠리 조지아대학 교수의 저서 'The Millionaire Mind(백만장자 마인드 1,2 북하우스 출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탠리 박사는 미국의 실제로 성공한 733명을 인구 통계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30가지를 우선순위로 정리 발표했다. 지면상 1~5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위: 성실성-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 4위: 내조/외조를 잘 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 3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공동1위: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 공동1위: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대목은 30위 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공동 1위가 '정직' 과 '자기관리' 라는 말에 존경심과 숙연함까지 갖게 한다.

정직과 자기관리가 성공을 향한 우선순위 No.1 이다.

10여 년의 조직 생활에서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회사를 통해 배운 “ 자기관리(셀프리더십) ”



강규형

(현) (주)3P자기경영연구소 대표이사
 (현) 독서포럼 '나비' 창립자 및 대표
 (전) yCBMC 총연합회장
 (전) 푸르덴셜 라이프플래너(MDRT 3회 연속 달성)
 (전) 이랜드그룹 푸마사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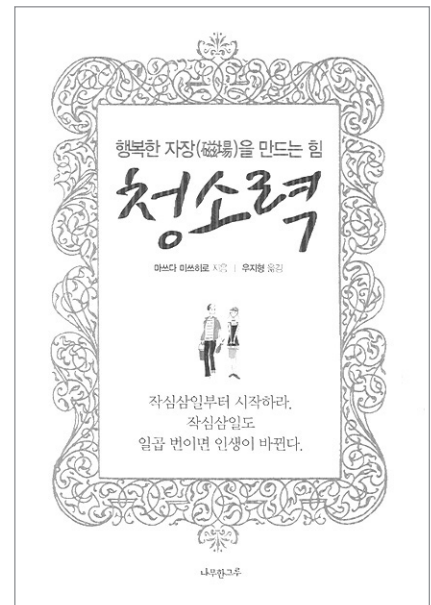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책소개

골치 아픈 문제와 고민을 깨끗이 날려버리는 청소의 힘!

우리는 주변이 더러울 때 청소를 한다. 그리고 깨끗해진 주변을 보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무슨 일을 시작해도 다 잘될 것 같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흐트러진 방, 또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 등에서 계속 생활하면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과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한다.

『청소력 :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는 청소의 개념을 우리의 인생에 접목시켰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자장(磁場)을 만들어 낸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번영, 행복한 가정, 꿈의 실현, 일의 성취 등 각종 고민거리들을 깨끗이 청소하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고 조언한다. 우선 1장에서는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을 소개한 다음, 2장에서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을, 3장에서는 '플러스를 불러들이는 청소력'을 설명한다. 이 안에는 정리정돈, 더러움 제거, 환기 등 청소의 기본적인 사항들도 있지만 본래의 자신을 불러내는 파워, 호흡법, 주위까지 행복하게 하는 파워 등 고차원적인 사항들도 가득하다.



저 자 _ 마쓰다 미쓰히로
역 자 _ 우치야마 유지형
출판사 _ 나무한그루

누구나 하는 성공<?> 아무나 못하는 성공<!>

성공은 재능이 아닙니다.
목적 있는 방향의 “관리”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면서 자신의 본질보다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신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게 되죠.

결국 “남보다”에서 “남만큼” 정도로 기대치가 낮춰지게 됩니다.

거북이를 앞서 갔던 토끼가 갑자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저렇게 느린 거북이를 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뛰어야 할 목적을 잊어버렸죠. 결국 고민하다 잠이 들고 더 깊은 잠에 자신을 관대하게 둔 결과 그 느린 거북이에게도 패배한 수치스러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앞만 보고 갔습니다. 영금 영금…….

그러나 거북이의 성실함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토끼와 함께 경주에 임했지만 그의 다른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이에게 목표를 둔 토끼와는 달리 거북이는 골인점을 명확히 두고 성실하게 갔다는 점입니다.

그거 꼭 성공해야 합니까? 갑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슬슬 웃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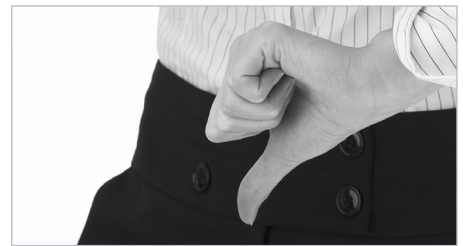
그분의 의도에는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 토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열심히 뛸 필요 있나? 라고요.

첫 번째, 성공은 경영의 대상입니다

누구나 경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5년, 10년, 20년 후는 경영이 어렵지만.



그러나 다음주? 아니 내일?은 경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일 어떤 일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 고객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여자친구를 만나 용기를 갖고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갖길 원합니까?

설마 위의 일들이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치는 않으시겠지요?

절대로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은 선택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계획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들어야 합니다. 다이아리를 보고 당당히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영의 범위입니다.

약속이 잘 안 잡힐 수도, 여자친구와 연락이 안 될 수도, 자녀가 너무 바빠 아버지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영 외 변수입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변수까지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변수와 빗겨간 결과를 이유로 전화까지 들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위한 선택을 지금 하셨습니까? 현재의 그 선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연결이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선택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음식점에 친구들과 갔습니다. 뭘 먹을까? 그러나 그 친구는 한마디로 끝습니다.

“난 아무거나” 결국 그는 아무거나 주어져도 아무거나에 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자신을 선택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결과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은 주도의 대상입니다

실패자들의 공통점은 모든 문제가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운이 잘 안 따라준 것입니다. 외부경기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까요?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직업을 찾아 다닙니다.

결국 제대로 집중해서 파보지도 못하고 파다만 우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 맥없이 끌려가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은 바로 실패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젠 과감히 환경의 가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문제의 탓보다는 내적인 가능성을 찾아나서야 합니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공하는데 지금의 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에 지금의 이런 경험과 위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감동의 클라이막스와 극적인 해피엔딩을 위해 바로 그 좋지 않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타이밍입니다

성공에는 분명히 약간의 운(運)이 따릅니다. 이진 사실입니다.

관건은 그 운이 나를 선택했는가? 내가 그 운을 만들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위에서 말한 경영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통제 가능한 것들의 범위 안에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도움이 될 수도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혀 무관한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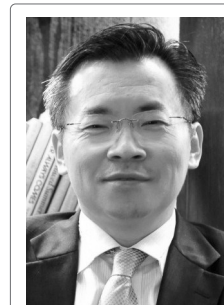
내게 주어진 1%의 가능성(運)이라도 99%의 노력과 준비로 100%를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성공은 바로 내부와 외부의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순간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것입니다.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운(運)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오는 운은 아무에게도 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단히 지루하리만큼 반복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내부 역량과 외부의 기회 접점을 살리는 “통찰력”이 한번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경영, 환경, 시간의 역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김형환

한국경영리더십컨설팅 대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경영전략기획, 리더십 실무, 글로벌마케팅, 해외현지화 경영전략 등 강의

지식재산권으로 히트상품을 만들어보자!

육아용품 편

풍요로운 가을을 위한 준비

가을이다! 강력한 바람을 몰고 왔던 태풍 ‘곶파스’와 올 추석에 갑자기 닥친 수해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우리 곁에 슬며시 스며들고 있었다. 쌀 재고량이 최대 160만 톤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풍년을 감사하는 축제들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10월을 장식하고 있다. 경작지가 국토의 약 1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넉넉한 수확물들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웠던 60~70년대부터 꾸준히 농업기술 연구에 이바지한 아버지 세대들의 노력 때문이었으리라. 충만한 가을을 누리기 위해서는 알찬 봄, 여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1 - 이번 2010년 베이비페어에는 1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다



그림2 - 종래에는 유아용품을 만들지 않았던 (주)세계산업의 히트 상품 '쁘띠앙쿠션욕조'

국가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집필한 명저 ‘국부론’에서 "미국의 부와 인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아마 100년 안에 미국 세금이 영국 세금을 앞지르지도 모른다."고 예언했으며, 그의 말대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은 영국을 앞질렀다. 나라를 세운 지 겨우 100년 남짓 만에 대영제국을 앞지른 만큼 나라의 힘을 키운 원동력은 바로 인구였으며, 미국은 이후로도 풍요로운 ‘국가적 가을’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42조원을 투입함에도 1.15명으로 곤두박질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있으면 ‘과연 30년 후 우리나라의 가을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반면, 지난 8월 22일까지 열렸던 제18회 국제임신출산 육아용품전시회(베이비페어)에는 약 1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린 현상을 보면, ‘아이 키우기’에 대한 열정은 세계 어느나라 부모들보다 월등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태교 용품, 임산부 용품, 출산 용품, 영유아용 식품, 화장품, 완구 및 교육교재, 유모차 및 카시트, 베이비



그림3 - 스토케의 실물사진



그림4 - 등록디자인 제30-0371324호로 보호받고 있는 스토케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구, 공기청정기와 연수기 등 35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4개월짜리 아이를 두게 된 필자도 총 850개 부스가 들어선 이번 전시회를 직접 참관하면서, 낮아지는 출산율에 반비례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아용품시장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유아용품 사업을 하지 않았던 회사의 진출이 상당히 늘어났다. 과거 신발 밑창을 개발하던 에르코스통상은 신발 밑창에 쓰이는 합성수지 성형 기술을 적용, 인체공학 수유시트 '맘비 베이비 케어시트'를 출시했고, 유명 자동차들의 카시트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트 전문 기업 '레카로'도 프리미엄 유모차 '베이비젠'을 내놨다. 육조전문기업 세계산업은 '쁘띠앙 유아용 쿠션 욕조'를 선보였다.

이제는 '육아의 양'보다는 '육아의 질'을 따지는 2,30대 부모들이 우리사회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키우는 세대가 곧 우리나라의 '가을'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퀄리티 있는 육아를 원하는 2,30대 부모들을 상대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아용품'에 숨어있는 지식재산권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모차의 제왕 - 스토케

'가장 비싼 유모차'로 알려진 스토케(STOKKE), 노르웨이의 프리미엄 유아용품 기업인 스토케는 최근 국내유명호텔에서 유모차 신제품 출시기념식을 할 정도로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옵션 용품을 제외한 기본품의 가격만 2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유모차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내런칭 이후 연간 5,0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스토케의 국내시장 성공에 힘입어 세계각국의 명품유모차들의 국내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요소비자인 2,30대 주부들의 유모차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다.

스토케의 유모차는 그 디자인적인 특징이 종래의 유모차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며, 이러한 디자인적 장점을 '당신의 아이의 눈높이를 높이세요'라는 강력한 카피라이트로 어필함으로써 시장에서 완전히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케의 디자인은 한국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2005년 9월 30일에 국내출원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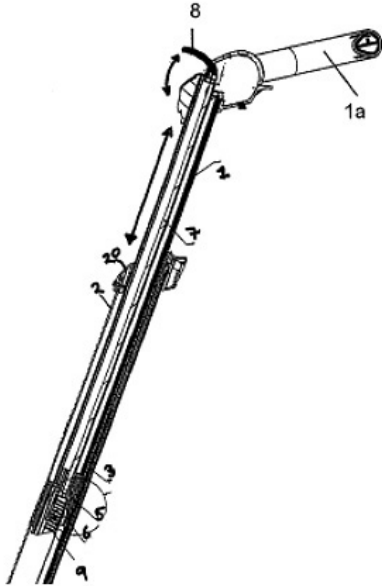


그림5 - 국제출원 PCT/NO2004/000189으로 보호받고 있는 트롤리의 삽통식 스템을 위한 잠금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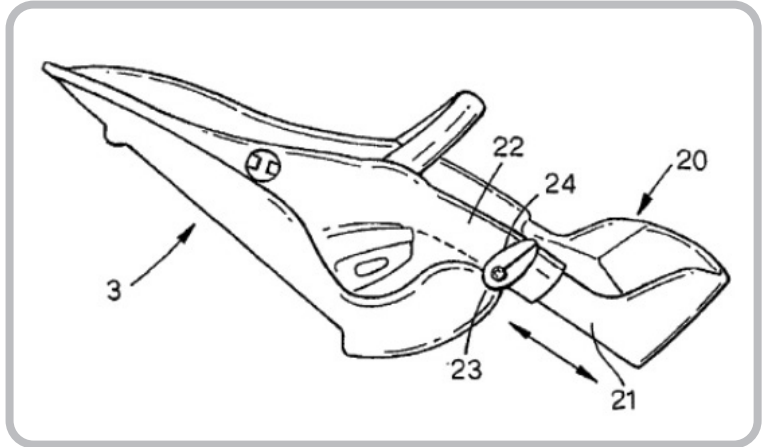


그림6 - 국제출원 PCT/NO2004/000188으로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용 좌석의 높이 조절 장치 및 삽통식으로 조절 가능한 발 지지부

스토케 디자인출원은 2005년 4월 1일에 노르웨이에서 출원된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출원되었고, 2006년 5월 23일에 국내 디자인권 제30-0371324호로 등록되었다.

한편,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모차의 특성상, 여러 가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케사는 이를 ‘트롤리의 삽통식 스템을 위한 잠금 장치(국제출원 PCT/NO2004/000189)’ 및 ‘어린이용 좌석의 높이 조절 장치 및 삽통식으로 조절 가능한 발 지지부(국제출원 PCT/NO2004/000188)’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외에도, 스토케는 ‘유모차’ 하나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개발로 다량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비싼 제품’과 매출로 환급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이 합체된 스토케의 유모차야말로 ‘명품 특허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일무이한 ‘스토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겠다.

엄마들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범보의자’

2001년에 개발되어 전 세계 80개국 아기엄마들의 손을 아기로부터 해방시켜준 의자. 육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 24시간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가사’는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집착이 심하며, 이로 인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친정부모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범보의자’라는 발명품은 스스로 앉지 못하는 3 ~ 6개월짜리 아기를 스스로 앉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하루에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까지 주부들이 가사일을



그림7 - 범보의자는 많은 아기엄마들의 ‘시간’을 확보해 준 착한 발명품이다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준 것이다.

이 의자는 몸을 가누기 시작하는 3개월부터 두 돌까지 사용 가능한 크기(폭 38.5 x 높이 24cm)로 등부터 겨드랑이까지 고정시켜 주며 아기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구조로 제작돼 엄마가 안심하고 가사일에 집중할 수 있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무독성 소재로 제작돼 가볍고 운반 및 휴대가 간편하다. 또한 의자 표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엠보싱 처리를 가해 여름철 연약한 아기피부가 땀으로 짓무르는 것을 예방한다.

범보의자의 발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보이텐다치 요한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범보의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유사품이 엄청나게 등장했다.) 하지만, 범보의자의 명성과 퀄리티에 힘입어 개량발명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라는 명칭으로 국제출원 제PCT/IB2008/050166호로 출원되어 국내에 진입하였다. 발명자는 국제출원에서 ‘본 발명은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10)에 관한 것으로, 개구(18), 시트 위에 앉은 유아의 몸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 형성부(14) 및 시트의 개구가 변기의 볼로 통할 수 있게 변기 시트 위에 놓일 수 있는 기부(16)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는 시트와 지지체 형성부와 기부가 일체형 구조를 갖는 것과 탄성 재료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지체 형성부의 적어도 일부가 유아의 체중의 영향으로 시트 위에 앉은 유아를 향하여 굽혀지게 한다.’고 기재하여, 발명의 특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1에서는 [하나의 개구가 마련된 시트와, 상기 시트 위에 앉은 유아의 몸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 형성부와, 상기 시트의 개구가 변기의 볼로 통할 수 있게 변기의 시트 위에 놓이는 기부를 포함하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에 있어서, 상기 시트와 지지체 형성부와 기부는 일체형 구조이고 탄성 재료로 제조되며, 상기 탄성 재료는 지지체 형성부의 적어도 일부가 유아의 체중의 영향으로 시트 위에 앉은 유아 쪽을 향하여 굽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를 기재하여, 상당히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항1을 한정하는 종속항을 6개 추가하여, 세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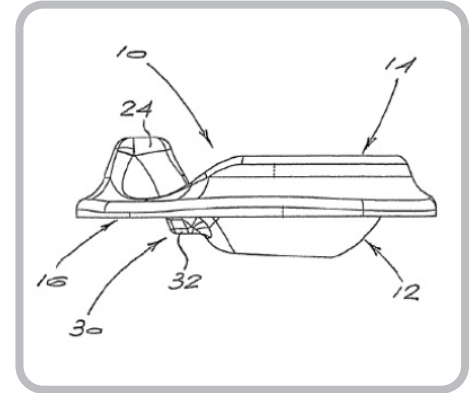


그림8- 국제출원 제PCT/IB2008/050166호로 보호되고 있는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



그림9- 유아용 변기 사용 연습기의 실제 사진

대세는 모유수유, 하지만 쉽지 않다 - 메델라 착유기

모유를 먹이면 아기 머리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 전염병 예방 효과가 우유보다 6배나 높고, 아기 돌연사의 위험이 적어지며, 엄마젖을 먹인 어머니는 자궁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 이외에도 모유를 먹여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모유수유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착유기’라는 발명품이 탄생하였으며, 많은 산모들과 아기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의 메델라사는 1961년 설립 이래 많은 착유기



그림10 - 메델라의 수동식 착유기는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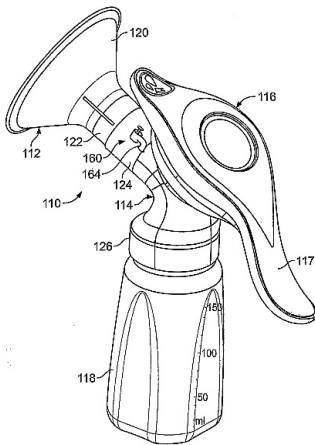


그림11 -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의 문헌에 기재된 메델라유축기 도면

제품들을 연구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유착유에 있어서 독보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회사에서 개발한 착유기 제품들은 여성들의 유방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설계된 것으로, 많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펌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로 보호되고 있는 동기식 다이아프램 브레스트 펌프 펌핑 주기 압력 제어 시스템은 메델라사의 ‘하모니 유축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유축기의 특징은 무전동방식의 유축기로서, 펌핑 주기 동안에 브레스트 실드 챔버 내의 유방에 실제로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고, 최소 진공을 유지하는 주기를 측정하여 모유가 추출될 수 있는 최적의 압력을 유지해준다는 것에 있다. 국제특허 제PCT/US2008/059927호의 청구항1에는 [모유를 추출하기 위한 개선된 브레스트 펌프로서: 브레스트 펌핑 세션에서 적어도 어떤 반복된 주기의 진행 동안에 그 내부에서 적어도 최소 부압을 유지하도록 브레스트 실드 챔버와 연결된 메커니즘을 구비한 브레스트 실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브레스트 펌프]가 기재되어 있으며, 메델라사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종속항 및 기타 독립항이 무려 74개나 추가적으로 청구되고 있다.

마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수록 출산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면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제품들 중에는 직접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제품화하여 크게 성공한 제품들도 있고, 전문적인 피부질환치료제에 관한 특허물질도 있으며, 단순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제품들도 다수 있다. ‘발명품’에서 ‘발’자만 떼면 명품이 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조차 감탄한 아이에 대한 대한민국 부모의 열정을 발명품으로 구체화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유아용품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엄정 한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엔트리
서울대, 공주대, 경상대, 강원대
지식재산권 특강
저서 : 특허법 에센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

•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B1(의복류),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08.1.1부터 시행),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시('08.1.1시행), B2(복식품, '10.1.1부터 시행), B5(신발, '10.1.1부터 시행), F1(교습구, 서화용품, '10.1.1부터 시행), F2(필기구, 사무용품, '10.1.1부터 시행)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과 공업상이용가능성,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용이창작여부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샴푸의 웰빙(well-being), 한방샴푸

요즘은 그야말로 웰빙(well-being)시대다. 채소, 과일 등과 같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과자에서도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등과 같은 표시는 어색하지 않다. 이 같은 웰빙 열풍 대상은 샴푸(shampoo)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트에 가면 40여 종의 각종 한방샴푸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방샴푸. 일반 샴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한방샴푸의 포장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특허 받은 한방 성분 포함”

기업들은 한방샴푸의 성분과 효능에 특허를 받고 한방샴푸가 특허 받았음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특허에 기재된 효능과 함께 한방샴푸를 광고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세우는 샴푸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양한 한방샴푸들 (그림 출처 The daily cosmetic)

일반적인 샴푸는 물 35~40%, 모발과 두피의 피지와 오염물질을 세정하는 세정성분이 45~55%, 윤기, 보습 등을 위한 각종 기능성 첨가제가 5~8%, 방부제와 색소 그리고 향료 등이 1%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물과 세정제를 제외한 기능성 첨가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샴푸의 기능과 종류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한방샴푸에서는 어떤 특허 받은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광고하는 한방샴푸들에 대한 특허들을 살펴보자.

[DOORI] 땡기머리 기골드 샴푸

각종 소비자 평가 및 시장점유율에서 우수한 순위를 선점하고 있는 땡기머리 샴푸는 샴푸 용기에 발명 특허를 취득하였음을 기재하여 이를 일종의 품질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 용기에 기재된 등록특허 제10-0469658호는 2001년 6월 18일 출원되어 2005년 2월 독립청구항 제 1 항과 이의 종속청구항 제 3 항의 총 2 항으로 등록되었다.

본 특허의 특징은 탈모를 방지하고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며 비듬과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한방성분을 함유함에 있다. 본 한방성분은 물 800kg에 썩 100~400kg, 인삼 1~10kg을 넣고 남은 용액이 500~700kg으로 되도록 가열하여 1차 용액을 제조하고, 상기한 1차 용액을 300~500kg으로 되도록 다시 가열한다. 그 후 샴푸원료에 상기 약초액 조성물을 9:1~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샴푸를 제조하게 된다.

또한 당귀, 감초, 천궁, 백지, 대추, 창포, 산수유 중에서 하나 이상의 약초를 선정하여 각각 1~5kg을 더 첨가하여 제조하면 더 우수한 효능을 발현할 수 있다.

본 특허 이외에도 (주)두리화장품의 이병수(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59-1)는 등록 특허 제10-0802192호는 한약재를 이용한 발모제 조성물에 대하여 권리 화하였다. 본 특허는 또한 유럽, 일본, 미국 등에도 우선권 주장 출원되었다.

제10-0802192호의 특허는 발모촉진 및 탈모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을 덜어주며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성분을 특징으로 한다.

본 특허에 따른 성분은 다음 성분을 포함한다. 물에 인삼과 구절초의 한약재를 넣고 가열하여 추출한 한약재 추출액 10~40중량%, 점도 조절제 0.1~15중량%, 계면활성제 30~80중량%, 오일 0.1~15중량%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한약재가 그것이다. 여기서 한약재 추출물은 물 800kg에 인삼과 구절초의 한약재를 30~70kg을 넣고,



100℃에서 3~8시간 예비 가열하고, 달인 다음 짜낸 중간 추출액이 600~700kg 정도 얻어지도록 48시간 이상 1차 가열하고, 최종 농축액이 400~500kg 정도로 되도록 중간 추출액을 다시 2차 가열하여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성분에 따른 한약재 조성물을 성인이 아침, 저녁 하루 2회씩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개월	두피의 가려움증이 진정됨
2개월	두피의 습탈형의 모발이 소생함
3개월	소생한 모발이 성장함에 따라 검은색을 띠
4개월	검은색을 띤 모발의 굵기가 증가함

상기 제10-0802192호 특허의 실시 예에 따른 효능

상기 특허 제10-0802192호는 발모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로서, 샴푸로 제조될 수 있으나, 별도의 발모제 상품으로도 제조 가능할 것이다.

[LG생활건강] 리엔 한방클로스 클리닉 자하진 샴푸



다음은 5가지 특허 받은 한방 성분(고삼추출물, 세신추출물, 황련추출물, 작약추출물, 영지추출물)을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 LG 생활건강의 리엔의 자하진 샴푸라인이다.

특히 세신추출물은 탈모방지 및 모발성장 촉진과 관련된 모발 성장기 유도 촉진 작용이 우수한 특성이 있다. 고삼추출물은 남성형 탈모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알파-리덕타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한다. 이 같은 한방 성분에 대하여 (주)엘지생활건강의 등록 특허 제10-0750473호는 청구항 제 1 항에서, 세신추출물이 조성물 전체중량에 대하여 0.01~10중량%, 고삼추출물은 0.001~10중량%의 함량을 갖는 세정 조성물을 권리범위로 특정하고 있다.

세신추출물의 모발 성장기 유도 촉진 작용 평가 결과

세신추출물 농도	0.001%	0.01%	0.1%	1%	10%	대조약
면적비(%)	24.8	42.4	60.2	68.8	72.4	12.0

특허 명세서 내 기재된 세신추출물 유도촉진 작용의 실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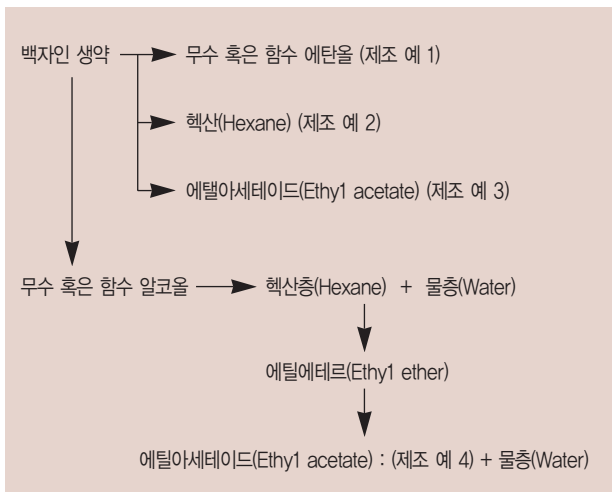
상기 결과에 따르면 세신추출물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대조군의 종래 기술보다 유도 촉진 작용이 더 효과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원번호 제2004-0049049호로 출원되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본 특허는 상기 한방 성분 중 황련추출물에 대한 권리화로 보인다. 황련추출물로부터 추출 가능한 베르바민 성분은 두피의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려(呂)

다음은 백자인 추출물을 함유하여 탈모를 방지하는 건섵의 아모레 퍼시픽 '려' 제품이다. 본 제품 또한 특허 받은 한방 성분을 함유하였음을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을 어필하고 있다.

특허 성분은 등록 번호 제10-0444102호의 '백자인 추출물 함유 발모촉진용 화장료 조성물로 (주)태평양이 특허권자이다. 본 발명은 백자인의 유기용매 추출물이 탈모를 유발하는 활성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촉진하는 5알파-환원효소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백자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발모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기능성 성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등록특허 제10-0444102호의 대표도면

[소망화장품] 다나한 머치모

다음은 소망화장품에서 시판하고 있는 다나한 머치모 제품이다. 본 제품도 역시 모발 및 두피 건강을 위하여 특허 받은 7가지 한방재료를 첨가하였음을 홍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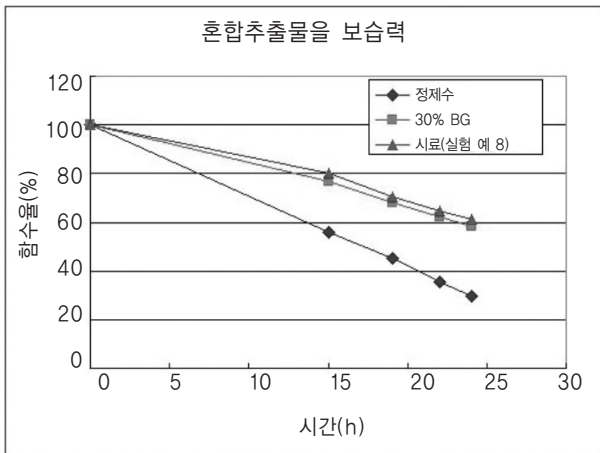
홍보 대상 특허는 소망화장품의 명의로 2003년 9월 5일 출원되어 2005년 10월에 등록된 등록 특허 제10-0524291호다. 특허 명칭은 '흑미, 검정콩, 검정참깨, 익모초, 창포, 도엽 및 마치현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로서, 본 성분이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보습작용이 뛰어나, 우수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짐을 기재한다.

본 한방 성분은 흑미, 검정콩, 검정참깨, 익모초, 창포, 도엽 및 마치현의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고(청구항 제 1 항), 추출물의 함량이 1 내지 30중량% 범위로 함유(청구항 제 3 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화장품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일례는 다음과 같다.

- 1) 흑미, 검정콩, 검정참깨, 익모초, 창포, 도엽 및 마치현의 혼합 원료에 대해, 물,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부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하나 이상의 용매를 선택하여 상기 식물들의 총 부피의 1~20배량을 가한 후,
- 2) 50~95°C에서 4~20시간 가열하거나, 5~37°C에서 1~15일간 침적시켜 추출물을 얻는다. (청구항 제 9 항)



등록 특허 제10-0524291호의 대표도면

상기 대표 도면의 실험 예는 본 특허의 한방 추출물이 종래의 조성물보다 더 높은 보습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판되고 있는 한방샴푸는 저마다 특색을 강조하며 청포, 동백유, 대나무, 인삼, 버섯, 블랙푸드 등 다양한 특허 받은 천연 한방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종류의 한방 성분을 포함한 한방샴푸를 출시하고, 출시된 한방샴푸가 특허 받은 것이므로 기존의 샴푸보다 효능이 탁월함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이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춰야만 특허로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 특허는 소비자로 하여금 종래 기술에 비하여 효능이 우수하다는 관념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받은 성분을 포함하였음을 용기 등에 표시하여 홍보하고 소비자

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광고하는 내용과는 달리, 한방샴푸의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21명의 패널단을 선정해 한 달간 국내에 판매 중인 한방샴푸인 땀기머리, 다나한, 러, 리엔의 4개 제품에 대하여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5점을 만족으로 할 때 2.3점(다나한) 내지 2.5(땀기머리)에 그쳤다.

기업들은 한방 성분들 및 그 효능에 대해 특허를 받고 이를 광고하지만, 기업이 특허를 내세워 광고하는 한방샴푸의 효능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에는 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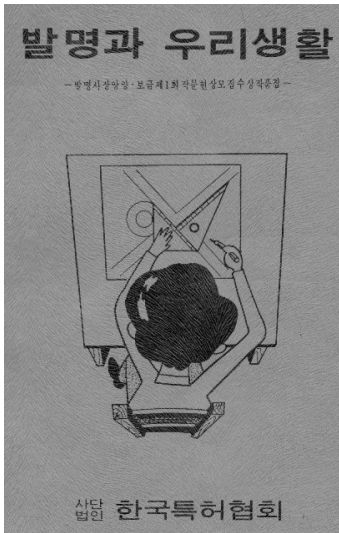
특허성분의 함량이 너무 적게 포함되거나, 특허의 내용이 소비자의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외적 요인이거나, 소비자에게 이유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특허를 내세워 한방샴푸를 광고하는 기업에게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기업은 특허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꾸준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운 추가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허 받은 것만을 광고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특허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뒷받침되고 소비자의 오랜 신뢰를 얻는 제품만이 명품 한방샴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김규연

현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전문위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학사
제45회 변리사 시험합격
전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재직



최초의 발명 작문 현상모집 수상작품집

19 76년 한국특허협회(현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사상 양양·보급 제1회 작문현상모집 수상 작품집- ‘발명과 우리 생활’을 발간, 배포하였다. 이 행사가 지난해 제33회를 맞은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행사로 발전했다.

1973년 1월 19일 창립한 한국특허협회가 당시 ‘우리의 최대 무기인 두뇌자원을 양성·개발할 수 있는 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발명하고 과학하는 마음을 길러서 이것을 점화로 전 국민에 전파시켜 나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

모집은 1975년 12월에, 시상식은 1976년 2월 2일에 실시했다.

당시 응모작이 몇 편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응모된 작품은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심사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24편(초등학생 13편, 중학생 11편)을 선정, 시상하고 작품집에 모두 수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4편의 작품을 분석한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왕연중 소장(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은 ‘24편 공히 최근 실시한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작’이라고 평가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변화를 관리하는 기업

목표와 변화를 관리하는 기업전략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변화’라는 단어는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이 되어버렸다. 물론, 변화를 싫어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조직을 일컬어 ‘철밥통’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기업의 경영과 운용에 관해서 지금만큼 ‘변화대응’을 이야기하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심지어 기업에는 수많은 최고책임자들이 있는데, 변화관리자 혹은 변화책임자(Chief Change Officer)¹⁾라는 직책들을 서둘러 만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과거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관리와 경영의 전문화를 논하던 90년대를 지나, 늦었지만 최근에는 리더십과 지식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창기 우리 기업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곧 기업의 존립과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물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흔히 배푼 사람이 줄어들면서 소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웰빙으로의 관심이 전환된 것처럼, 오늘날의 기업도 단지 죽느냐 사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조직을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여, 기업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기업이 쉽게 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1) 물론 최고변화책임자라는 직위를 운영하는 기업이 없지는 않다. 이들은 다양한 기업전략들을 변화되는 시장환경에 맞춰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든 기술과 생산능력만 있으면 기업은 존속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도 생겨났으리라 본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날과 같은 변화에 부딪혀서는 '가치 있는 기업'으로서의 존속을 고민하느니, 차라리 폐업의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손쉬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들이 적지 않다. 특별한 가치를 창조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꾸준히 구매하는 물품들을 적당히 시장에 만들어 넘으로써 기업을 존속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국내시장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 내수의 다변화 정도만을 신경 쓰면서 명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업자체가 변화하기 보다는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경영이라기보다는 영입이 기업활동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경영이란 조직의 운영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전략이 없는 기업에게는 경영이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기업의 주요 활동이었던 채용, 기술개발, 영업수준의 마케팅을 가리켜 경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이 기술을 통해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구입할 것인가, 라이선스해 올 것인가? 이 제품의 판매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판단을 경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위 구멍가게 전략과 다를 바 없다.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하려면 야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할 것인가? 손님들이 주로 원하는 제품을 잘 공급해 주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인가,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동네 주민들만이 아니라,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학교나 교회 같은 지역단체는 없는가? 구멍가게도 하고 있는 고민이자 판단이다.

구멍가게와 기업의 운영이 다르지 않다고 흔히 농담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풍토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당장의 생산과 판로의 기회를 위해서 ad hoc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때그때의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고, 자금을 구하는 식의 영업중심의 기업 활동이 우리의 기업풍토가 되어 왔다고 하면 너무 호된 표현일까? 물론, 선진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이고 꾸준한 목표점을 가지고 경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티기술자로서 1960년대에 처음 3명의 직원으로 기업을 시작한 일본전산이라든지,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2인 기업으로 출발한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만으로 이 회사 저 회사에 더부살이하면서 명맥을 이어오다 결국에는 디즈니에 합병될 정도의 우수한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성장한 픽사와 같은 기업을 보자. 현재 이들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성장과 결과에 주눅이 들어, 이들은 우리의 처지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림1 1973년 교토의 시골창고에서 임직원 4명으로 시작하여 계열사 140개, 종업원 13만 명의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킨 일본전산의 창립자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

기업의 존재 목적

일본전산과 같은 기업은 오죽하면, 일하러 오는 취업희망자가 없는데다가 있어도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뿐이어서, 결국 독특한 채용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뽑고 나서 성장시키자는 의지로, 밥 빨리 먹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했다.

일본전산이 교육지계에서 선택한 방법이었지만,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소위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전략에 딱 들어맞는 경영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용한 사람들을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임원급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모터분야에서 1인자가 되겠다는 창업부터의 목표가 바로 그 원동력이라고 꼽고 싶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단 포섭하고 채용한 사람들은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함께 하면서 파트너로, 동료로 성장시켰다. 앞서 언급한 픽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루카스 필름의 외진 사무공간에서 '애니메이션의 꿈'을 가진 이들이 모여 충분하지 않은 급여를 나누어 가지면서도 사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이 Pixar라는 이름으로 스티브 잡스에게 팔려가면서도 이들은 스스로 고통을 감내했을 뿐,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목표와 꿈을 잃지 않았다. 고작해야 적자를 메울 수도 없는 정도의 수익 밖에 얻지 못했던



그림2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를 만든 픽사(Pixar)의 3D 영상 슈퍼바이저 밥 화이트 힐이 국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픽사의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들이 아이 같은 감각을 지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TV광고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도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경험이자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곳곳이 목표를 향해 정진했다.

기업은 과거 교과서에서 배운 바대로 '이윤추구'가 목표이다. 아니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윤추구에만 목표라는 방점을 찍어서는 이윤을 얻기 어렵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 역시도 목표와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인 IDEO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닥, 펍시콜라, 토요타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은 물론 심지어 LG전자와 현대카드 등 우리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면서 '디자인의 심장'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IDEO에게는 경영도 디자인이다. 디자인적인 사고를 통해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막연한 의미일까? 아니다. 디자인이란 대부분의 경영컨설팅 기업들이 제시하는 식의 분석적인 방법론으로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확장하는 사고방식이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자, 다양한 대안으로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전략이 있는 기업

일본의 기업들도 지식재산 경영이란 측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삼위일체 경영'에 있어서, 이제는 양뇌적 사고를 도입하고 있다. 즉, 숲과 나무를 모두 볼 줄 아는 직원을 키워내는 것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삼위일체 IP경영전략이다.

IDEO는 오히려 패션회사처럼 일하라고 주문한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거나 다음 시즌에 출시할 의류를 만들어 내듯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것이 끝을 맺도록 하는 프로젝트식 운영방식을 제안한다. 금융회사나 R&D가 없는 제조업체가 갖는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체라고 해서 단지 프로세스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 있을까?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해외 혹은 국내 우수 기업의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더욱이 혁신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특허분쟁은 제조 하도급을 맡고 있는 기업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특허침해에 대한

위협은 제조업체를 향해서 흔히 제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술과 특허가 변화되면, 그에 따른 제조설비와 생산인력의 변화에도 감당해야 할 무리가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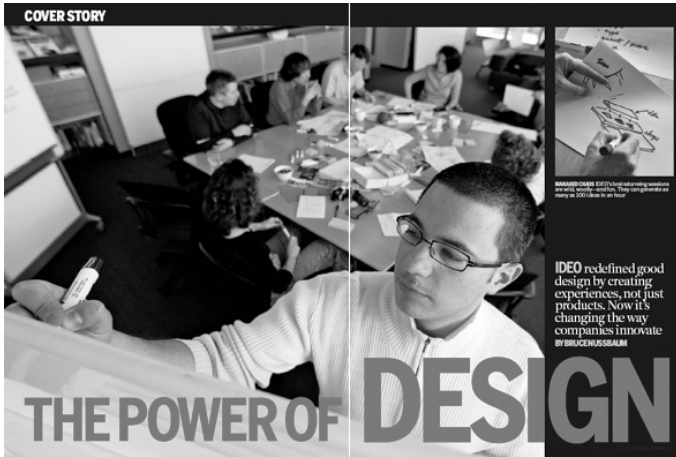


그림3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k)에 실린 IDEO에 관한 기획기사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그동안 다양한 소재의 키패드를 만들던 제조업체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들이 전혀 기술이 다른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휴대전화에 키패드를 납품하던 기업이라면 유사한 키패드를 사용하는 다른 아이템을 발굴하던지, 어쨌든 업종의 전환이나 고객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겪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종결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²⁾



그림4 LG화학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 LG화학은 2012년 3월 첫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순수 전기자동차 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경제매거진 2010. 7. 28일자)

과거 우리의 기업 역사를 돌아볼 때, 치약을 만들던 렉키가 LG와 합병이 되었고, LG생활건강이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LG화학이 화학기반의 소비재, 건축자재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LG화학에서 건축관련 분야는 LG하우시스로 독립하였고, 최근에 LG화학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으로도 유명해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을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세우고 있다. 치약을 화학산업의 대표적인 생산품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아서는 그저 코웃음만 치고 말 것이다. 과거의 기업이 그 명맥이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과거에 설립한 기업이 여전히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동일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 현재 많은 키패드 생산 업체들이 소재개발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센서를 활용한 제품이나 터치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IT관련 산업분야에서 터치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입력장비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변화 관리

이제 변화는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일본전산과 픽사의 경우처럼 일관된 목표를 향해 끝없이 목표관리를 해 온 기업들도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전산이 미국 3M에 카세트용 소형모터를 납품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 IBM에 하드드라이브용 모터를 납품하게 된 데에는 시장의 변화를 감지한 나가모리 시게노부 사장의 집념이 있었고, 앞으로 모터구동형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플래시 메모리형 디스크가 점점 보급되고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전산은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50%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화석연료의 한계를 절감하여,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모터 부문의 세계 제일이라는 그들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이 목표관리와 함께 변화관리를 끊임없이 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픽사의 경우도 수많은 경쟁자들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슈렉 시리즈'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인 드림웍스라든지 20세기 폭스사의 '아이스 에이지'도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물론 애니메이션 시장이 단지 극장용 영화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시장도 성장할 것을 전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틈새를 만든다는 의미이고 그 틈새로 또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지 모르는데다가, 확대된 시장은 누가 선점할 것인가도 이들의 고민이 될 것이다. 픽사는 초기에 생명이 없는 무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 <토이스토리>를 통해, 장난감에게 생명과 인격을 부여했고, <벅스 라이프>와 <니모를 찾아서>를 통해 동물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이 좀처럼 등장시키지 않았던 '인간들'을 서서히 애니메이션의 소재라는 수면 위로 떠올리고 있다. 비록 보통의 인간들은 아니지만 <인크레더블>을 통해 인간 가족의 삶을 소재로 하였고, 이제는 <업>과 같은 휴먼드라마를 통해,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새로운 동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변화는 주도하거나,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주도자들을 긴장토록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특허라는 측면에서도 분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기업들이 있

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대다수는 원천기술의 실현기술과 주변기술들을 섭렵해 나가면서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서 스스로도 원천기술을 갖게 되었다.

결론

우리가 변화관리자 혹은 변화책임자라고 하는 직책을 두지 못하더라도, 기업에 속한 모두가 바로 변화관리자로서 변화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IDEO의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이 기업은 디자인 기업이면서도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단지 저작권 정도로 인식할지도 모르지만, 디자인권이 아니라 1978년부터 축적하여 기술적인 측면의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지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디자이너들의 자기개발 노력에 맡겨져 있지 않고, 창업자인 데이비드 켈 리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직과 IDEO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CEO인 팀 브라운의 경우, 런던 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경영진에서부터 끝없는 혁신과 학습에 노력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것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전산도 개인의 개발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하는 직원 모두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다.

가진 게 없고, 시간이 없어서 교육도 등한시하고, 기술개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애사심을 가지고 기업에 공헌하는 직원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없이 생산력만 고갈시키고 말았다는 후회만 남게 될지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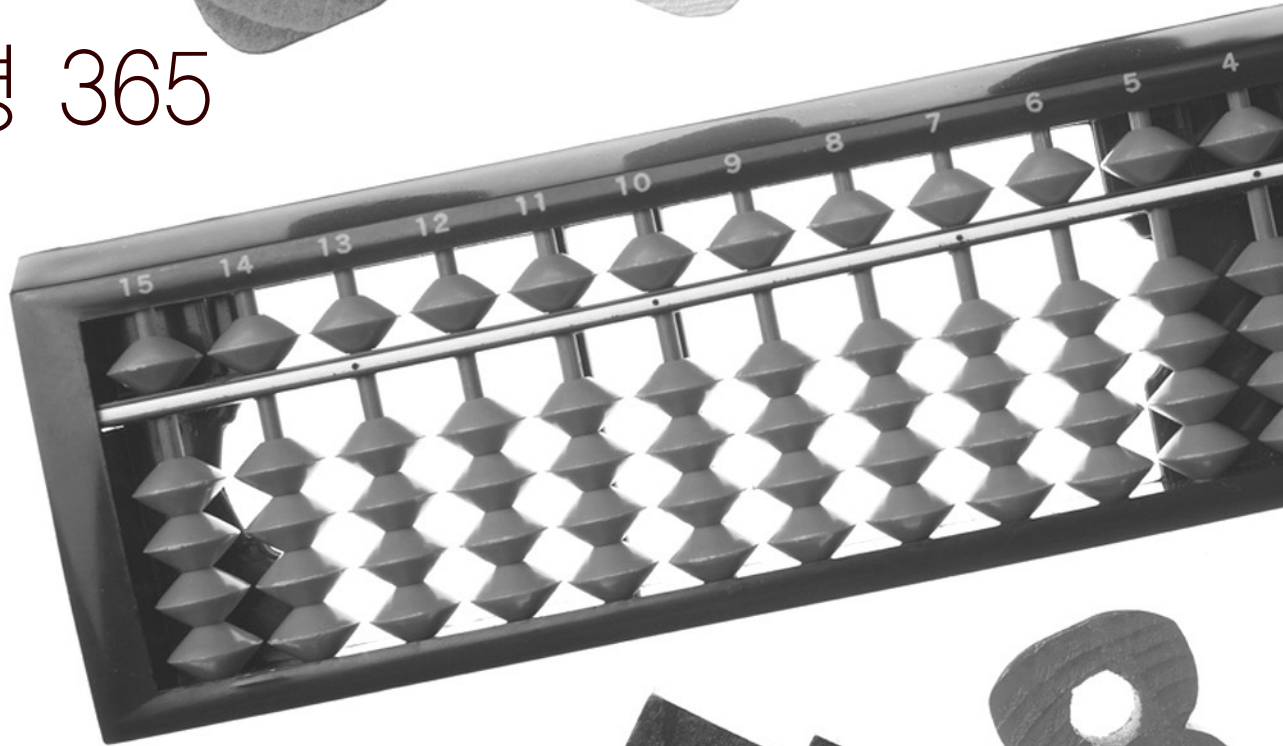


이 태 원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운영지원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논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고찰

발명 365

주판



인간은 물건을 세기, 더하기, 빼기 등 간단하지만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능력이 점차 개발되어 고대인들은 마침내 수학을 터득하였고, 상업적인 것에서부터 기술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응용하였다. 주판은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기계 중의 하나이다. 언제 만들어졌을까?

최초의 주판 형태는 기원전 3천 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 이때의 주판은 평평한 판에다 모래를 담

은 것으로 손가락이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모래 위에다 표시하는 것이었다. 주판은 영어로 asacus인데 이 말은 고대어의 '먼지(dust)'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판은 그 후, 흙을 낸 판으로 개선되었다. 주판은 그리스와 인도에서도 발견되고, 190년 경에는 중국에 널리 퍼져서 현재 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숙련된 사람은 전자계산보 다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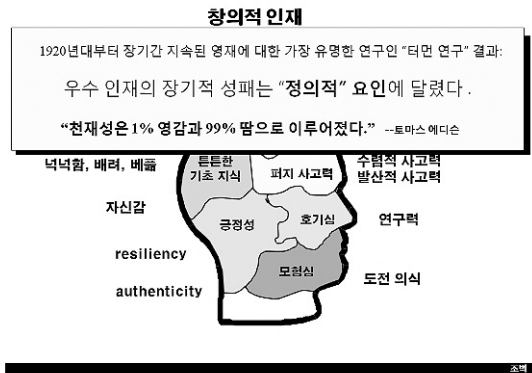
▶ 왼쪽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창의발명교육과 정연우 과장', 'KAIST 영재교육원 이광형 원장',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김광수 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홍만표 원장',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조벽 센터장', '한국발명진흥회 최종협 상근부회장', 'KAIST 이민화 교수', '한국발명진흥회 인재개발본부 홍용준 본부장' 등이다.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2010년 9월 9일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장'에서
각 기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차세대영재기업인으로 선발된 학생들 대상 전문가 1:1 맞춤형 지원시스템 제공

우 리회는 지난 9월 9일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현판식을 갖고 기관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홍만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이광형 KAIST 영재기업인교육원장, 이민화 기업호민관, 김광수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시장가치를 좌우하는 창조경제의 시대이다. 현재와 같이 지식주도형 경제 체제에서는 창의적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양성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특허청과 우리회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두 대학에 영재기업인교육원을 설치·위탁하여 빌게이츠(MS),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Google)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중·고등학생을 선발·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여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영역의 균형적인 발달이 필요한 것이다. 1920년대부터 장기간 지속된 영재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인 ‘터먼 연구’의 주요결과에서 우수 인재의 장기적 성패는 ‘정의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개내용 중

◀ 조벽센터장의 센터의 역할소개 모습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들은 영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고도로 우수한 영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우수한 지능으로 인해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대인관계문제, 사회윤리적 문제 등 사회적응상에 어려움이 두각되고 있다.(Clark, 1983; Dauber & Benbow, 1990; Hollingworth, 1975)

둘째,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도움 받고자 하는 요구는 있으나,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전문가의 부재로 도움의 마음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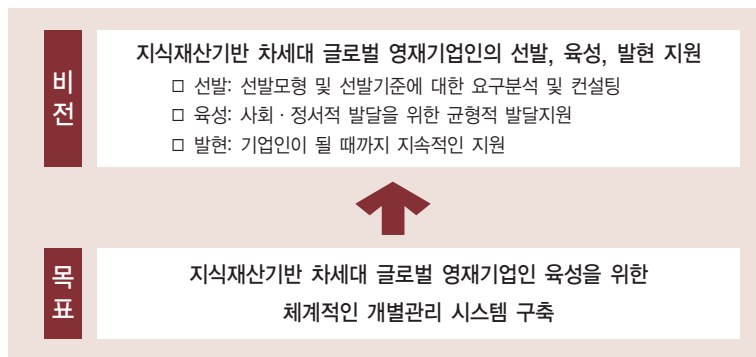
셋째, 영재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스타일 및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이 달라 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1:1 맞춤형 개별 지원이 요구되는데, 속진학습을 하는 영재는 대부분 고정된 방식의 학습에 실증이 많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또래에 비해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 이와 달리 심화학습

을 하는 영재는 정서적인 힘을 특정영역에 몰입하기 때문에, 감정이 매우 민감하여 작은 실패에도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느낀다. 속진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인 송유근 대학원생(14세)의 어머니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영재성의 발현 못지않게 나이에 맞는 성장과정을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09.06 여성동아)

넷째, 영재학생은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능력으로 자신의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른 시기에 다재다능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진로를 설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재성으로 인해 부모님 등 주위의 지나친 기대로 자기 의지와는 달리 강요된 진로를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경우처럼 영재들은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재교육과 더불어 심리, 영재, 진로 등 다양한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차세대영재기업인 센터에서는 양 대학의 교육원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1:1 맞춤형 개별관리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녀의 지적, 정의적 영재특성으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님을 위한 상담 및 지원도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영재학생의 발전과정과 결과에 학부모가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영재부모는 자녀의 지적, 정의적 영재특성으로 양육 및 진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확한 자녀능력 발달정도, 양육하는 방법, 학교 및 진로 결정하기, 자녀의 정서상태 다루기 등을 도움받고 싶어한다.(Dirks, 1979)



▲ 센터의 비전 및 목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영재특성 진단서비스이다. 고도의 우수한 영재들은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기 보다는 특정 영역에 대해 강점을 나타내는데, 뛰어난 지적능력과 사회, 정서적 발달 수준의 차이로 인해 이들에게 영재성은 축복임과 동시에 부담일 수 있다.(Peterson & Sunde, 2006) 따라서 영재 개개인의 독특한 발달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별진단이 요구되며, 그 결과는 이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개별영재특성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사회, 정서적 발달 수준
- Multipotential로 인한 진로결정 및 진로설계 수준
- 창의성, 동기 등 일반적 영재성 수준
- 특수영재성

둘째, 영재기업인으로 발현할 때까지의 장기적인 성장지원이다. 장기적 성장지원은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 개개인이 교육원 수료 후 여러 교육단계와 인생의 주요 전환점을 지나 성인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기적인 교육, 진로, 심리 영역에 대한 상담 서비스
- 다양한 교육, 진로 등 관련 정보제공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학생 개별특성 파악 및 종합적 성장지원을 위한 DB구축

셋째,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상담서비스이다. 학생들에게는 영역별

전문가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자아발전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양육방법, 진로문제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자녀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상담 서비스 내용
 - 영재성 상담 및 지원
 - 영재기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진단 및 상담
 -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 진로설계 등 진로발달을 위한 진로검사 및 상담
- 학부모 상담 서비스 내용
 - 자녀 능력의 발달 수준 및 특성에 대한 이해
 - 자녀의 정서 상태를 다루는 방법 등 자녀양육 상담
 - 자녀 및 학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상담

넷째, 영재학생들의 학습스타일 및 정서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정보제공이다. 맞춤형 정보제공이란 궁극적으로 영재기업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정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특성에 맞게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기업가 정신 함양과 글로벌 마인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국내외 프로그램 소개, 위치, 참여방법, 장단점 등)를 영재학생의 수준 및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 정보제공
- 안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개인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정보 제공
- 교육생 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경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로정보를 제공

위에 제시된 서비스내용이 전체적으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방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센터의 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영재전문가(이행은 박사), 차세대영재기업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HRD전문가(이운조 박사), 안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지원을 위한 심리전문가(최민경 전문위원),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전문가(유효현 박사), 온라인상담 및 성장지원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상담전문가(임효신 주임)와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없을 정도로 저명하신 조벽 센터장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센터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전공·활동지역·학교출신·경력이 매우 다양하여 서로 어색하고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센터는 9월 9일 현판식을 통해 공식적인 기관발족을 알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려고 한다. 차세대영재기업인 센터가 양 대학 교육원과 같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정말로 빌게이츠와 같이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기업인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이운조
 (현)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전문위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산업핵심역량연구팀 선임연구원
 서울대 중등교원연수, 경인교대 강사

아직 하지 못한 말... "엄마 사랑해!" 친정엄마와 2박3일

문화산책



Review

강부자 선생님의 소름 돋는 연기는 역시 압권! | 이미숙
평생 가슴속에 담아둘 정도의 감동! | 이미연
최근에 가장 평평 온 공연! | 엄기준(MBC 놀러와 중에서)
엄마랑 같이 보면 딱 좋은 공연! | 한자혜
한 관객으로서 진심으로 감동했다! | 박해진

엄마처럼 세상 모든 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단어가 또 있을까 | 동아일보
내 엄마여서, 내 딸이어서 고마운 포옹 | 경향신문
엄마와 나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눈물샘을 건드린다 | 조선일보
연극(친정엄마와 2박3일) 흥행몰이중 | 연합뉴스
강부자, 연극(친정엄마와 2박3일) 흥행몰이 임박까지 등장? | 뉴스엔
엄마라고 말할 때 가슴 벅차는 울음이 올라오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 dk83
저희 엄마가 아주 예뻐 잘~했다고 무진장 고마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 ps525
코앞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눈물이 저절로 흐르게 하네요 | kyung7985

256회 공연, 13만 관객이 만난 엄마와 딸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함께하세요.

제10회 <2009 국회대상> 올해의 연극부문수상작
인터파크 2009 티켓파워상, 관람객투표1위, 9주 연속 티켓판매1위
대한민국 연극 최초 해외투어 (2010년 2월 LA, 뉴욕 투어 매진)



“ 잘 다녀왔습니다! ”

작년 한 해 친정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객석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서울 초연 이후, 앵콜, 지방 공연에 이어, LA와 뉴욕 공연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민 배우 강부자와 단아한 이미지의 전미선이 엄마와 딸의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합니다. ”

Synopsis

혼자 잘나서 잘사는 줄 알던 못된 딸과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딸을 낳은 것이라는 친정엄마와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딸 미린은 어느 날 연락 없이 시골 정읍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한다.
모두를 타지로 떠나고 아버지도 없는 친정 집에는 엄마 혼자 쓸쓸히 전기 장판에 따뜻함을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혼자사는 밥도 잘 차려먹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공상맞고 속상해 화를 내고 엄마는 연락 없이 내려온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하다.

이런 저런 지난 이야기와 서로의 가슴속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엄마와 딸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다.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은 어딘가 많이 아프고 피곤해 보임을 눈치챈 친정엄마는 점차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던 중 여동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가족들이 하나 하나 시골집으로 도착을 하게 되고,
이로써 가족의 따뜻함 속에 그들은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Overview

제목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일정 2010년 9월 10일(금) ~ 2010년 11월 12일(금)
시간 화, 목 8시 | 수, 금 3시, 8시 | 토 3시, 7시 | 일 3시 | 월 공연 없음
추석연휴 9월 20일(월) 8시 / 9월 21일(화), 9월 23일(목) 5시 공연 / 9월 22일(수) 공연 없음
장소 성균관대 새천년홀
연령 만 12세 이상
가격 VIP석 60,000 / R석 50,000 / S석 40,000
출연 강부자, 차유경, 유정기, 전미선, 이서림, 박윤희, 서지영, 김찬훈, 이보배
주최 ㈜아이에이치큐
제작주관 ㈜컬비스
협력 ㈜애경산업 LIQ
문의 02-333-7203
홈페이지 www.mom23.co.kr twitter @mom23_2010

Information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 건강하게 삽시다 • KIPO NEWS •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KIPA NEWS • 재미있는 퍼즐



Information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경상남도

Namhae



남해 죽방멸치

생긴 모양이 납작하여 일반멸치(유선형)와 확연히 구별됩니다. 남해죽방 멸치는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양질의 아미노산과 n-3 계열의 고도 불포화지방산, 각종 유용 비타민, 정미성분 등을 함유하여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그 가공처리 방법에 따라서 수산 가공품의 다량원료로서의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표명 |
남해죽방멸치

| 권리자 |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33호

| 상품분류 |
제 29류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연락처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
055-867-0983



- 01 • 유래
죽방멸치는 '죽방'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말뚝을 통해 멸치를 잡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 02 • 특성
일반 멸치처럼 그물로 잡지 않고, 남해안의 청정해역의 빠른 유속에 의해 멸치들이 죽방림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비늘이나 몸체 손상 없이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죽방림 설치와 어장면허가 제한되어 있어 소량만이 생산 가능하고, 고영양 플랑크톤이 서식하는 남해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적어 비린내가 나지 않는 고급 멸치입니다.
- 03 • 일반 멸치와 죽방멸치의 차이점
 - 생긴 모양이 납작하여 일반멸치(유선형)와 확연히 구별 됩니다.
 -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 어획되는 양이 많지 않아 희귀성이 있고 설치와 어장면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육지와 불과 5분 거리에 있기에 어획에서 가공하는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수심이 얕은 연안 특수 해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비늘과 몸체 손상이 거의 없어 고급품종으로 분류되며 출렁임이 없는 고정식 통발에서 건져내어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 가공처리 됩니다.
 -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적어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 특유의 구수한 맛이 뛰어난데 이유는 서식해역의 고 영양 해양 플랑크톤과 완벽한 먹이사슬 때문입니다.
 - 색깔이 은백색에 금빛이 은은하게 깔려 보기에 고급스럽습니다.

경상남도

Samcheonpo



삼천포 쥐치포

쥐치와 생선은 쥐치, 말쥐치, 객주리, 날개쥐치, 그물코쥐치 등이 있는데 모양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질기고 깔끄러운 껍질을 하고 있으며 입이 작고 머리에 '송곳' 하나씩을 단 것은 다 같습니다. 머리, 뼈, 내장, 껍질을 빼면 살이 소량인 쥐치를 포를 떠서 만든 것이 쥐치포가 됩니다.

삼천포 쥐치포

| 상표명 |
삼천포쥐치포

| 권리자 |
삼천포쥐치포생산자 영어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 34호

| 상품분류 |
제 29류 쥐치포

연락처
삼천포쥐치포생산자 영어조합법인
055-831-3110

01

• 유래

국내에서 쥐치를 포 떠서 말려 먹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의 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일본에서 쥐포를 보고 와 1960년대 말에 이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한 것이 한국 쥐포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조미하여 말리는 방법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것이고, 삼천포에는 '화어' (花魚)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전하고 있어 쥐포 역사의 시작을 일제강점기로 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02

• 특성

쥐포의 가공은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기계화 하는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머리를 잘라 기계에 넣어야 하는 여분의 수작업이 따르고 꼬리의 살이 잘려나가 수율이 떨어지는 등 수작업에 비해 효율이 적어 기계화하는 작업은 사라졌습니다. 포를 뜬 쥐치의 살은 설탕과 소금, 조미료 등으로 버무리고 여러 조각을 붙이는 공정을 거쳐 건조실에서 건조를 하는데 예전에는 햇볕 건조를 하였으나 날씨에 따라 제품의 질이 들쭉날쭉하여 요즘은 기계건조를 합니다. 건조온도를 섭씨 25도 이하로 두면 자연건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0년 3월 현재 쥐치는 1980년대의 어획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 간식으로서 삼천포 쥐포가 꾸준히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삼천포

경희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박용덕

흡연이 구강질환을 유발할 때 우리가 얻는 손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80%에 육박하던 1990년대 중반에 지구상에서 최고에 이르렀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주일 씨는 사망 3일전 까지 TV 광고에 나와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흡연이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흡연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율은 2010년 40%대에 정체 상태에 있지만 왜 흡연이 건강에 나쁜지를 다시 생각하여 흡연중지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2학년, 담배에 관심 많던 큰형이 내게 할아버지 담배 한 개피를 훔쳐서 정작 내게 권했던 기억이 있다. 다복한 가정에서 넓은 뒤뜰 장독대에 고등학생인 큰형과 앉아 담배를 몇 모금 피웠을까……. 우연히 지나치던 막내 삼촌에게 걸려 무지막지하게 혼나던 기억이 여전하다. 세월이 35년도 훨씬 지났지만 당시 우리 집에서 대 사건으로 지금도 막내 숙부님(당시 막내삼촌)께서 놀려대시고, 그 기억을 또렷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기억 때문이었을까? 지금은 담배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근실한 장년이 되었음을 숙부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치과의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지식인데, 흡연은 우선 입안으로 연기를 빨아드릴 때 음압이 생성된다. 구강 내로 모아진 연기 속엔 각종 해악의 물질이 가득 찼을 텐데 이 연기를 짧고 강하게 흡입함에 따라 잇몸 조직과 구강 내 점막에 스며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강조직에 담배연기가 스며들어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년기 즉,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세포생성이 왕성하고 모든 조직들이 미완성단계여서 조직상태가 열려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흡연은 바로 열린 상태에서 흡연으로 인한 음압은 더욱 구강 내 조직 속으로 파고들게 하여 성장 시기 다양한 인체 발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각종 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타르 같은 물질은 점막 속에 오래오래 잠복하여 잇몸의 변색이나 염증조직을 유발하여 특정 성인기나 혹은 그 이전에 잇몸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청소년시기에는 치아 배열이 미완성되어 부정교합 상태가 다소 존재한다. 그러나 턱관절이 좀 더 성장하면서 혀와 볼의 적절한 압력과 긴장에 의해 특별히 구강 내 습관이나 턱에 무리가 가는 악습관이 없는 한 대부분 가지런한 치아배열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기 습관보다 더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것이 흡연습관이다.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청소년기 흡연은 입안에서 매 흡연 시 음압을 일정하게 유발하여 치아가 올바르게 배열되고자하는 방향과 달리 움직이게 되어 부정교합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조사 보고서 등을 보면, 최초 흡연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내려온 최초 흡연연령 비율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들은 흡연시기가 빠른 만큼 평생 동안 흡연 시기가 남들에 비해 훨씬 길어진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각종 구강 병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하다. 성인기의 흡연으로 인한 구강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자.

2010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치과병의원에 10곳에 내원한 환자 1,288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소개한다.(흡연으로 발생하는 치과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박용덕, 2010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들 중 312명(24.2%)이 흡연으로 인한 구강병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환자들의 질병을 구분한 결과 치주질환(풍치, 35.9%), 치아착색 및 치석제거(35.3%), 치아우식증(충치, 17.9%), 부정교합(5.8%), 구강암(5.1%) 등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의원에 내원하여 발생한 손실을 조사한 결과, 연간 흡연자 1인당 평균9,907,083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초과진료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다. 번거롭게 치과병원에 다녀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교통비, 생산성 손실비, 대기하면서 소비되는 시간비용, 그리고 정작 치료 시 두려움과 통증에 부여된 상실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거나 점차 사라지고, 흡연을 한다고 해도 흡연장소까지 1일 평균 9회를 이동하여 손실되는 시간만도 1일 65분이라는 업무시간 소모와 이와 함께 발생한 개인 스트레스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03점이나 되었다. 이를 대한민국 모든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환산한다면, 흡연으로 인한 우리의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은 너무나 큰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세상에 태어남에 오복을 개인 행복의 근원으로 추구하였다. 수(壽, 오래 사는 것), 부(富, 부유하게 사는 것), 강녕(康寧, 건강하게 사는 것), 유후덕(攸好德,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고종명(考終命,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등이다. 흡연은 각종 구강병을 유발하여 치아가 뽑히고, 잇몸을 악화시켜 급기야는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할 수 있다. 오복에는 치아의 건강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가히 오복에 들고 남음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쉽게도 오복하면 치아의 건강을 우선으로 꼽기도 하고 기억도 한다. 생각해보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 반복되면 음식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다. 또한 늘 주머니 속에 지저분한 담배가루를 넣어두고, 주위에 담배와 입 냄새를 풍기며, 때로는 노장년기에 각종 암에 시달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특히나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폐암환자들을 볼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숨쉬는 기능조차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폐암환자는 현실적으로 임종 때 면회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행한 사실이다.

앞서 제시한 자료처럼 흡연을 중지하면, 그만큼 건강을 얻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더욱이 경제적 이득까지 가져온다. 최소한 비흡연자는 인간을 오복 중 3가지를 스스로 얻고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한 세상의 시작은 바로 흡연을 중지하고, 흡연을 예방하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의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한-WIPO 간 국제출원 문서 전자적 교환 확대실시

특허청과 WIPO간 국제출원 문서의 전자적 교환이 확대된다. 양 기관 간 전자적 문서교환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 9월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WIPO와 국제특허 출원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국제특허 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을 WIP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세계 각국 특허청에 보급함으로써 국제특허문서의 전자적 처리 시대를 열기도 하였다.

올 6월부터는 국제특허 출원문서에 이어 국제상표 관련문서도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국제상표제도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따라, 국외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할 때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상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란,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정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10. 7. 기준 82개국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03년 가입하였다.

지난 5월 열린 한·WIPO 고위급 회의에서 양 기관은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시 한국 특허청에서 WIPO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후 총 3,581건의 문서가 전자적으로 송부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2일(수)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련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로 한·WIPO 간 문서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셈이다. 이로써 비용 및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향후 양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도 더욱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눈에 알기 쉬운 '특허 심사절차 안내서비스' 시행

특허청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산업재산권 심사절차를 출원인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 안내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출원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서면 출원인들은 출원번호 통지서와 함께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 출원인들은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출원인이 자기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이 어느 심사관에게 배정되었고 심사대기 순서는 몇 번째인지도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8080)로 연락하면 된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서비스의 실시로 출원인들, 특히 출원 경험이 적은 개인 출원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심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심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한국, 지재권 국제사회에 ‘나눔’ 과 ‘공정’ 의 정신 전파

지재권 국제사회에서 ‘나눔’ 과 ‘공정’ 이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나눔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 청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선-후진국 간 갈등임을 감안할 때, 후진국들이 지식재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구축한 노하우를 후진국에게 나눠주는 ‘지식재산 나눔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허청은 그간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후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기술 보급 사업과 개도국 우수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제공해주는 ‘1촌 1브랜드’ 운동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실현이라는 국정지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 간 개발격차해소를 신규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청장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세계 지재권 제도의 조화와 및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를 촉구하였고, 계층간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지식재산 정책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공정한 지식재산 사회 구현”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 표준특허, 인터넷으로 한번에 본다!

전 세계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특허 전문포털(www.epcenter.or.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ITU¹⁾, ISO²⁾ 등 주요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표준특허와 MPEG LA³⁾와 같은 주요 특허풀에 가입된 표준특허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작업일정, 표준특허 관련 정책동향과 교육정보 등 표준특허 확보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

표준특허란 표준에 채택된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로열티 수입을 확대할 수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표준특허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외 표준화동향과 특허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내 산학연은 단편적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결과로부터 표준특허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UN산하 전문기구로서,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 제정·보급

2) ISO(국제표준화기구) : 비정부기구로서, 전기전자분야를 제외한 전산업분야 표준 제정·보급

3) MPEG LA : 동영상압축기술 관련 표준특허 라이선스 대행전문업체



특허청, 중남미 국가와의 지재산권 외교 교두보 마련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특허심사,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9. 22(수) 오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과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Maximiliano Santa Cruz Scantlebury) 칠레 특허청장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PCT 국제조사기관 :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특허성 여부를 검토하여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PCT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특허조약에 따라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로도 특허획득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적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칠레특허청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났다.

*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

같은 날 오전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Jorge de Paula Costa Ávila)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 간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 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허심판 구술심리, 초보자도 문제없다!

특허청은 구술심리에 처음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를 위하여 구술심리를 확대·강화하면서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 등 특허심판품질지표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나, 처음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심판당사자와 변리사의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곤 하였다.

기존에도 구술심리 사례별로 진행순서와 시나리오를 기재한 책자형태의 ‘구술심리 매뉴얼’은 있었으나, 활자만으로는 구술심리가 진행되는 심판정의 분위기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구술심리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누구든지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이용한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을 통하여, 구술심리 진행에 대한 현실감 있는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심리 동영상 매뉴얼』을 신규심판관의 구술심리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심판관들도 구술심리 진행 노하우를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절차, 확 바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허청이 주요 지원사업의 절차와 참여기업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67%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업체 등 수행기관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에 4주,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에 2주, 계약체결에 4주 등 총 10주가 소요되었으나, 개선된 절차에 의하면 50%가 단축되어 5주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당할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제도도 종전에 7~8주가 소요되는 것을 보험료 모델 제시, 서식표준화 등을 통해 3~4주 정도로 대폭 단축하였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등 수행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6개 사업에서 총 35종류를 폐지하였다. 입찰과 계약 시에 중복되는 서류는 입찰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지원 이력이나 발명관련 수상실적 등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 서류 간소화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바로 적용하고,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제공 특허청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경영: 지재권이 경영자원으로 창출·활용되고 지재권 리스크가 경영 차원에서 관리되어 기업의 경영전략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

9월 회원가임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충정특허법률사무소
- 대 표 자 : 성정현
- 업태/종목 : 서비스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6층
- 전화번호 : 02-772-2370
- 홈페이지주소 : www.hmplaw.com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출범식 열려

오는 11월 6일(토) 전국에서 제1회 시험 실시



○ 리회는 지난 9월 1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종협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지식재산
 T 유관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재산능력시험 출범식 및 교재(교재명:지식재산의 정식)출판 기념
 식을 가졌다.

21세기 지식재산시대를 맞아 특허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부상하고 IP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
 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체 등에서 지식재산 인력을 선발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수단이 부족하였다.

이에, 우리회는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학생들에게는 IP 관련 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코자 세계에서 최
 초로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개발하여 오는 11월 6일(토)에 제1회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지식재산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험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쳐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시험의 TOEIC처럼 점수로 표기
 하되 5등급으로 구분된다.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응시가 가능하고 응시료는 개인 20,000원 단체18,000원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pat.or.kr) 참조



우리나라, 2010 대만국제발명전서 금상 4개 등 수상



우리회 최종협 부회장 Outstanding Invention Contribution Award 수상

우 리회는 지난 10월 3일 대만 타이페이세계무역센터에서 폐막된 2010 대만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주)씨에 이팜의 ‘아토피 치료용 조성물’을 비롯해 장석종 씨의 ‘시력회복운동기용 제어장치’ 등 4개 출품작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엠이씨(대표 김현우)의 ‘마이크로 버블 발생 샤워기’와 한국전력공사의 ‘SD급/HD급 CCTV 영상처리 장치’ 또한 금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는 금상 이외에 은상 1개와 동상 3개, 특별상 등 모두 14개의 상을 수상했다.

대만국제발명품전은 지난 2005년 9월 시작돼 올해 6회째로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신력있는 발명전시회로 중화권 최대의 발명품 및 신기술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수상작은 오는 12월 우리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특별전시코너에 전시될 예정이며, 희망자에 한해 기술이전이 무료로 지원된다.



우리회 제1회 독서토론회 개최

조별 토론 및 개별 소감 발표

우리회는 지난 9월 28일(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복한 자장(磁場)을 만드는 힘 청소력」이란 도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최종협 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4 ~ 5명씩 짝을 지어 조별 토론을 하고, 각 조에서 한 명씩 개별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랜드, 삼성SDS, 현대자동차, 우림건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독서문화정착을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성과 동기 부여 및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정보화시대에 독서를 통한 지식의 공유는 모든 조직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회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독서문화를 도입하였으며, 최종협 상근 부회장은 이번 독서모임을 통해 “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회가 독서토론을 통해 미래를 향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른 아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임직원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한 감동했다.”는 말로 앞으로의 포부와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회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실시

총 15개 과제(신규:9개, 단기:6개) 채택



우리회는 신규수익원 확보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총 15개 과제(신규 : 9개, 단기 : 6개)를 채택하고 지난 9월 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시상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신규사업 아이디어는 3차의 심사절차에 걸쳐 채택되었으며, 선정된 과제는 제안별로 자율 공개모집을 통해 전략형 CoP(학습조직)를 구성할 방침이다.

우리회는 앞으로도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택된 총 15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명	제안자(팀명)	신규/단기
글로벌 창의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최화봉, 유정호	신규
KIPA-Lemelson License	진병욱, 최용준	
KIPA 학위과정	원희재	
"글로벌 지식재산스쿨" 추진	이수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김연민	
금융투자구축사업	김종현	
발명캐릭터 개발	이태원	
전국 교정시설을 통한 교육교보재 제작	이보람	
교원과 학생을 학습자로 하는 新발명교육	김상미, 이명희	
학생발명교육을 위한 창의교구개발	양진수, 최용준	단기
제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운영	송재우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 구축	원희재	
3D 프린터를 이용한 시작품 제작지원	서주현	
특허기술 경매용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정정숙, 주한중	
미국 특허소송 교육프로그램	윤용일, 안인영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서초성심치매단기보호센터 · 강남보육원 위문금 전달



이 리회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9월 20일 서초성심치매단기보호센터와 강남보육원을 방문(최종협 상근부회장, 강성용 사업지원본부장, 홍용준 인재개발본부장, 오승택 운영지원팀장, 김현태 노조위원장)하여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 결연아동 3명에게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

P u z z l 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 여)

주소:

전화: HP

□ □ □ -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1 3 5 - 9 8 0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8F 발명진흥팀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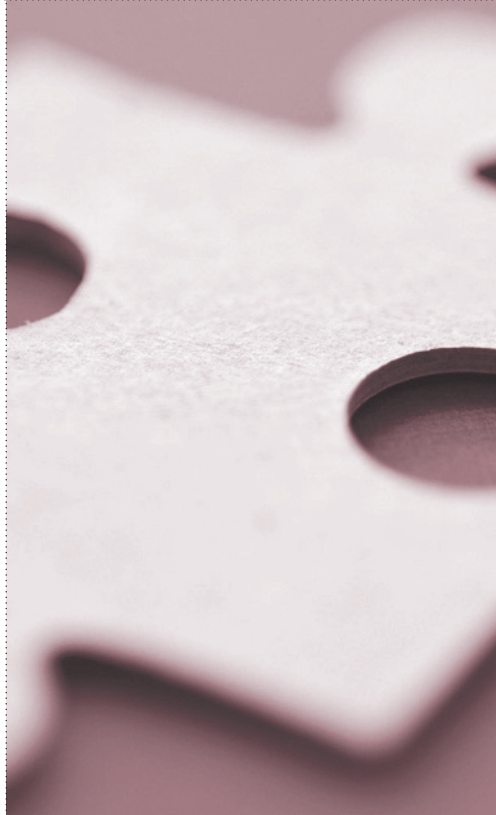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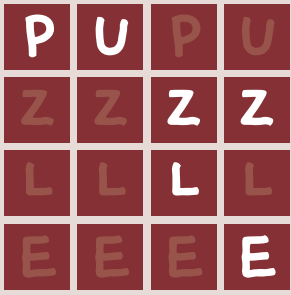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10월호 퍼즐정답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재미있는 퍼즐

재미있는 퍼즐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가로열쇠

1.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3. 조선 전기의 문인 · 학자(1342~1398).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峯). 이색의 문인으로, 조선 개국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다. 저서에 《조선경국전》, 《경제육전》과 문집 《삼봉집》 따위가 있다.
4. 얇은 물에서 자라며,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줄기와 잎의 대부분은 물 위로 뻗어 있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땅속줄기에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근계(根系)의 호흡을 돕는다. 갈대 · 부들 · 연꽃 · 줄 따위가 있다.
6. 참쌀가루나 찰수수 따위의 가루를 반죽하여 밤톨만 한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낸 후 고물을 묻히거나 꿀이나 엿물을 바른 떡. 또는 그런 모양의 것.
9. 서양 풍속에서,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는 의식. 부부가 서로 진주와 보석 따위의 선물을 주고받는다.
11. 차나꽃과의 상록 활엽 교목. 높이는 약 7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다. 4월쯤 붉은색 또는 흰색의 큰 꽃이 가지 끝마다 아름답게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늦가을에 붉게 익는다. 열매는 약용하거나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 등잔 기름 따위로 쓰고 목재는 공예의 재료로 사용한다. 따뜻한 지방의 해안에서 자라는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12.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14.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15. 육해공군의 소위 이상의 군인.

세로열쇠

2. 좁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바로잡음'으로 순화.
4.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하 및 그 전하에 의한 전기 현상. 마찰 전기 따위에서 볼 수 있다.
5. 좋은 구경도 배가 불러야 구경할 맛이 있다는 말
7. 쇠라도 자를 만큼 강한 교분이라는 뜻으로, 매우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
8. 달, 태양 따위의 인력에 의하여 해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보통 12시간 25분의 간격으로 하루에 두 번 일어난다.
10. 흰색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12. 고려 숙종 9년(1104)에 윤관이 조직한 군대. 여진 정벌을 위하여 기병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는데, 신기군 · 신보군 · 향마군의 세 부대로 편성하였다.
13.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비슷한 말.
15. 나무로 만든 32쌍의 말을 붉은 글자와 푸른 글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 판 위에 벌여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9월호 정답

조	정		대	한	제	국
	극	지	법		곱	
노			원		근	교
벨	칸	토		영		언
	영		벽	보		영
문	화	유	산		마	색
	제		호	신	술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E-mail):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A4(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TEL (02)3459-2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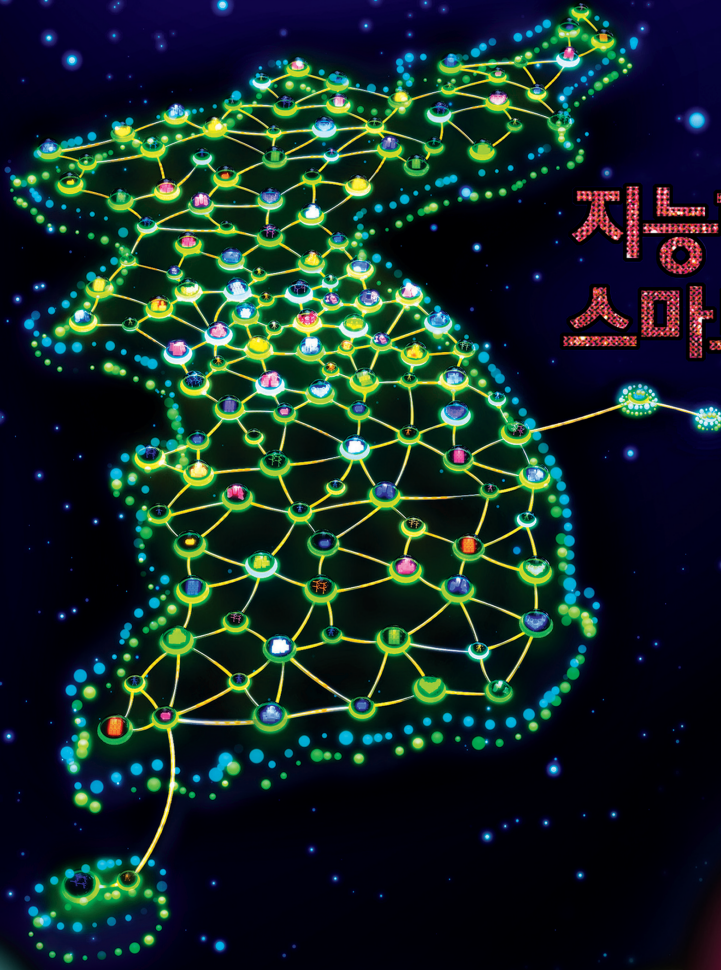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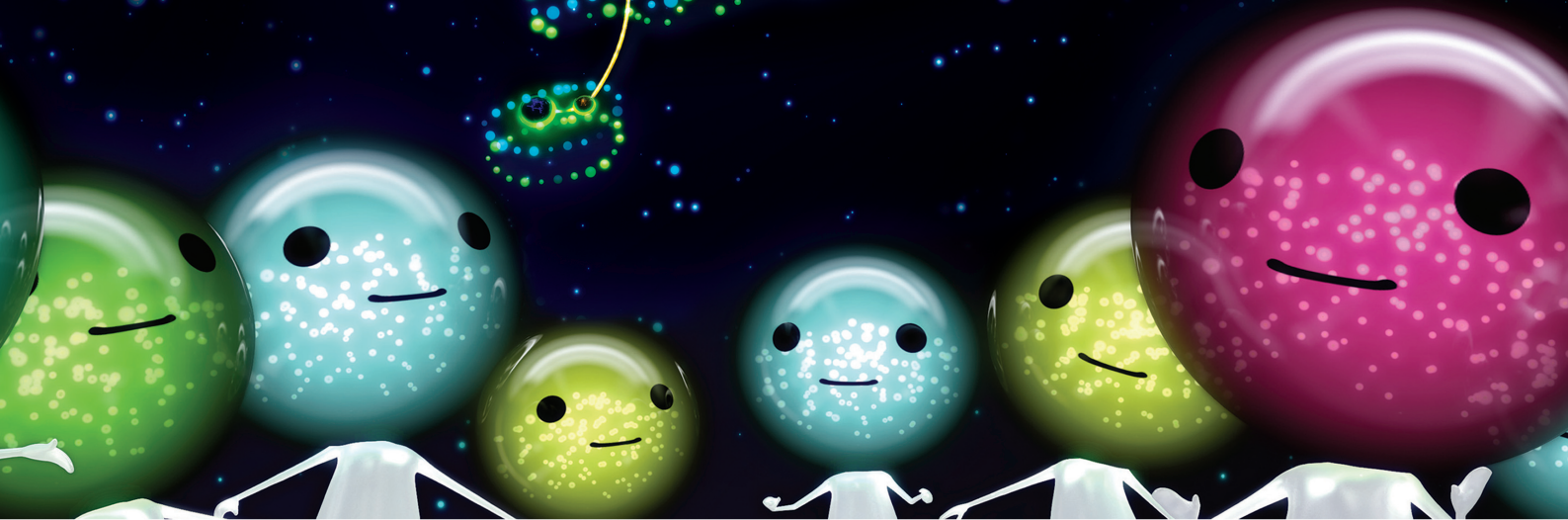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차명진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발명진흥팀 김민국 (Tel. 02-3459-2797, Fax. 02-3459-2799)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이 만들어 갑니다

전력망에 IT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기술과 노하우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에너지를 키워가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읽기도! 쓰기도! 삼성 e북 하나로 다된다

세상의 많은 책들이 이 한 권에!
실제 노트에 필기하듯 자유롭게!



책보다 편한 책, 삼성 e북

SNE-60/60K

- 실제 종이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전용펜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필기 가능 • WiFi로 PC연결 없이 콘텐츠 다운로드
- 다양한 포맷 및 파일 지원 (ePub, PDF, txt) • 전자사전 (영한, 한영, 영영) 기본 탑재 • MP3플레이어 기능

삼성 e북 콘텐츠 구매처
교보문고, 텍스트어

"중이책과 e북 동시 출간 기념 작가와의 만남 이벤트" 교보문고의 삼성 e북 출간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홈페이지 참조 www.kyobobook.co.kr) - 5월 김진명 작가



Samsung **eBook**

삼성전자 **SAMSUNG**